

**양안관계 연구동향- 이론, 쟁점, 연구기관, 학자**  
(Research trend for the relationships of Taiwan  
strait-Theories, Issues, Institutes, scholars)

**강병환(姜秉煥)**

**-적요-**

본 논문의 목적은 양안관계 연구동향을 정치학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양안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론을 분석하며, 양안간의 주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아울러 양안간의 연구기관, 학자들을 소개하여 중국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양안관계의 중요성을 환기 시킴과 함께 양안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이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정치학의 시각에서 양안관계를 연구하는데 명확히 드러나는 현상은 대체로 세 개의 주요한 영역에서다. 양안상호작용 모델, 국내정치(국내요소가 어떻게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환경(국제체계가 어떻게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영역이다. 양안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주로 이 세계의 영역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양안간의 쟁점으로는 비단 양안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문제의 실질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과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이 부딪히며, 양안간에도 과거 국공양당이 대만을 포함하여 전체중국을 누가 경영하는가의 치권지쟁(治權之爭)에서 대만의 민주화, 본토화, 타이완화의 길을 걸으면서 주권지쟁(主權之爭)으로 변모되었고 이는 다시 정체성 문제로 쟁점화되었다.

대만과의 통일은 중공의 삼대임무에 속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 중공은 전방위적으로 학회와 연구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문화학술교류를 강화시키고 있고, 대만 역시 안전이익과 경제이익의 줄타기 속에서도 비교적 무실적 입장에서 학술경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어:** 양안관계, Cross-strait relations, 하나의 중국

## 1. 서론

복잡하고 특수한 관계를 띠고 있는 양안관계는 대만해협 서측의 중국대륙과 대만해협 동측인 대만과의 관계를 말하며, 피차간의 특수한 역사적 상호작용관계 때문에 양안관계를 연구의 과제로 삼는다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연구의 각도에서 본다면, 양안관계는 그 대상(對象)으로 대륙연구, 대만연구, 대만과 대륙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양안간의 정치관계, 경제관계, 사회관계, 역사관계, 문화관계 등 다원적이다. 초창기 양안관계 연구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의 비정연구(匪情研究), 중국대륙의 장비연구(蔣匪研究) 등과 같이 명칭 자체부터 상호 적대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sup>1)</sup> 아직까지도 중국대륙은 대만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비취지는 것을 극도로 피하고 있으며, 대만의 심록진영<sup>2)</sup> 역시

양안관계를 중국과 대만관계로 정의 내리고 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하며 대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설령 관계가 있더라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양안관계 연구에 있어서 양안관계의 정의는 그 정치적 입장에 따라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고 양안관계 연구시에는 반드시 그 시기와 대상, 내용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안관계의 이론과 방법을 토론할 길이 없다.<sup>3)</sup>

‘양안관계’란 단어의 출현은 1990년대 대만이 동원갈란(動員戡亂)시기를 종결한 후에 비로소 등장한 명칭이다. 그 이전에 대만방면에서는 대륙문제, 중공문제로 칭했으며, 양안관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베이징 방면 역시 대만문제, 장방문제(蔣幫問題), 국민당문제 등으로 칭했고 양안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안관계라는 단어가 학문의 영역에서 사용된지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사실상, 1987년 장경국(蔣經國)가 대륙탐진(大陸探親)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양안관계’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다. 영문의 Cross-Straits relations 역시 일련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일반대중에 의해 먼저 인정되어 학문의 분야에서 사용된 단어다.<sup>4)</sup>

양안관계는 역사상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대만)과의 관계며<sup>5)</sup>, 피차 정부가 통치하는 범위인 대륙지구와 타이핑진마(臺灣、澎湖、金門、馬祖) 지구의 관계를 의미하나 중국대륙과 대만의 애매모호한 정위(定位)의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이상과 현실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물론 중공은 "양안문제는 내정"의 문제라고 공언하지만, 순수한 중국대륙내부의 문제는 아니다. 아울러 순수한 국제적인 문제도 아니다. 내부와 외부의 문제가 뒤섞여 복잡하고, 중공의 대만에 대한 장악능력이 유한하다. 그러므로 정치학 방면에서 양안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양안관계를 국제관계로 보거나 아니면 국내관계로 보느냐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중국대륙의 범위 이외에서 건국을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혹은 양안간은 중국내의 두 개의 분열된 주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국제정치의 각도에서 양안관계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으며<sup>6)</sup>, 타이두(臺獨)<sup>7)</sup> 이외의 다른 입장을 지닌 학자들 역시 기본적으로 양안이 분열분치의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내관계로서 양안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다수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현재의 양안관계를 말하자면 독특하면서 복잡한 두 개의 정치시스템(Political System) 간의 관계며, 그 독특하고 복잡한 본질은 양자간의 법리와 사실의 모순에서 오는 것이다. 대만해협의 현상유지

식한다. 범록진영 내부에서는 대만은 하루 빨리 독립을 선포해야 된다는 입장과 대만은 이미 독립되었다는 견해로 나뉘지며, 대만정명, 제헌, 대만 명의의 유엔가입을 주장한다. 천록진영은 현재 민진당의 노선과 유사하다. 대만을 중화민국이라고 칭하며, 혈연상으로는 중국한인의 혈통을 인정한다. 범록진영은 양안 간 하나의 중국 시장과 경제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계급용인(戒急用忍)파와 강본서진(強本西進)파다. 범록진영이라는 단어는 개략적인 정치경향이다. 대체적으로 대만정명을 주장하며 대만본토의식과 본토가치우선을 강조한다.

3)楊開煌,『出手-胡政權對台政策初探』,臺北:海峽學術,2005,2쪽.

4)蘇起,「兩岸關係的三個特殊性」,國安(評)090-284號,中華民國90年11月19.

5)중공중앙대판사무소에서는(中共中央台辦所), 대만에 관련된 정확한 용어사용의 지침을 내렸는데.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당국’, ‘대만방면’, ‘대만유관방면’을 사용하며, ‘중화민국’, ‘대만정부’, ‘국가’, ‘중앙’, ‘전국’ 등의 관방 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반드시 사용해야한다면 반드시 인용부호를 넣는다.

6)石之瑜,『兩岸關係概論』,臺北:揚智叢刊,1998,28쪽.

7) 타이두(臺獨)는 대만독립운동의 간칭이다.

1)楊開煌,『出手-胡政權對台政策初探』,臺北:海峽學術,2005,1쪽.

2) 범록(泛綠)진영은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및 단체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민주진보당, 대만단결연맹, 건국당 등의 정당과 대만교수협회, 대만사(臺灣社)등의 민간단체들이다. 이념을 건지하는 정도로 심록(深綠)과 천록(淺綠)으로 나눈다. 심록진영은 대중화주의 및 중화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며, 중화민국정권을 국민당 외래정권통치의 연장으로 인

라는 사실로서 볼 때 양안간 두 개의 독립적 국가 혹은 정치실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국제법(國際法)으로 볼 때 대만은 단지 하나의 내국가(內國家)며, 내부에서 스스로 국가라고 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국제사회에서 대다수 국가들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회원으로하는 대다수의 국제조직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안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적당한 이론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론으로서 현재의 양안간의 곤경을 해결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sup>8)</sup> 이러한 결과로 양안관계 연구한다는 것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안관계 연구동향을 밝히고 정치학의 시각으로 양안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이론을 분석하고, 양안간의 주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안간의 연구기관, 학자들을 소개하여 중국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양안관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함께 양안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이들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양안관계 연구시 주로 정치학 방면에서 적용하는 제반 이론들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미국을 포함한 국제요소, 대만요소, 중국대륙요소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의 가장 민감한 신경이다. 그러므로 중미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양안간에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이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양안간의 채널, 씽크탱크, 학자들을 소개하고, 양안관계가 한국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양안관계연구의 제이론 검토

정치학의 시각에서 양안관계를 연구하는데 명확히 드러나는 현상은 대체로 세 개의 주요한 영역에서다. 양안상호작용 모델, 국내정치(국내요소가 어떻게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국제환경(국제체제가 어떻게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역이다. 양안관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은 주로 이 세계의 영역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sup>9)</sup>

### 1. 양안상호작용 위주의 접근

양안간의 상호 작용 방면은 세 개의 이론을 정리할 수 있다. 통합이론, 분열국가모델, 게임이론으로 양안상호작용의 과정과 미래의 발전을 이론으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 이론들의 출발점은 양안관계는 어느 유형(類型)의 관계에 속하는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양안관계와 같은 유형은 없었다.

통합이론은 크게 세계의 주요한 학파가 있다. 기능주의, 신기능주의와 연방파다. 미트라니(David Mitrany)로 대표되는 기능주의 이론은 과학기술, 경제와 통신기술의 진보는 각국의 공동문제를 만든다.<sup>10)</sup> 통치(governance)의 효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관료는 기능상

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말해, 기능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협력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능주의의 최대의 공헌은 국제관계의 충격과 역량에 대해 과학기술과 경제의 변천을 부각시킨 것이다. 기능주의의 관점은 현재의 신자유주의학파의 전신이다. 현실주의학파의 권력평형이론에 비해 기능주의는 확연히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기능주의학파의 과학기술결정론의 경향은 전후 유럽통합의 과정에 대해서 그 해석력은 여전히 충분히 완성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일련의 학자들로부터 신기능주의이론(Neo-Functionalism)이 나왔다.<sup>11)</sup> 하스는(Ernst B. Hass) 신기능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능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왜냐면 기능협력은 비록 서로간의 공동이익을 강화하지만 역시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더구나 초국가적인 기제 건설의 결핍과 정치엘리트의 주관이 불확정적이어서 정치통합은 결국에는 탁상공론이 된다. 신기능주의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를 매우 강조한다. 경제통합은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부단이 그 범위가 확대되어 기타 여러 부분의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마침내 정치적인 통합으로 나아간다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확산효과는 통합의 중요한 관건이다. 연방주의자는 먼저 정치부분에서 착수하여 제도설계를 거쳐 다른 정치체제가 받아 들일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안배를 함과 동시에 고난도의 자주성을 유지한다. 즉 먼저 통(統) 후에 다시 합(合)해지는 것이다. 연방의 건립을 통해서 정치통일은 경제, 사회, 심리적 통합을 가져오게 한다고 파악한다.<sup>12)</sup>

분열국가모델은 원래 2차대전이 끝난후에 독일, 한국, 베트남 및 중국 등의 분열국가(Divided Nations or Divided Countries)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네 국가는 종족, 종교, 식민으로 분열된 국가와 비교할 수 있고 그 공통적인 특색은 첫째 국가가 분열하기 전에 분열된 쌍방은 원래 공통적인 언어, 역사, 문화 및 장기적 통일경험의 국가단위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분열되기 전에 국민의식과 국가권력구조 등 모두 완정된 단위였다. 둘째 국가의 분열은 국제적 협의에 의했던 내전에 의해서 분열되었던 간에 모두 쌍방 민중의 동의를 얻어서 분열되었던 것은 아니다. 셋째 분열된 쌍방은 최소한 일방은 모두 끊임없이 분명하게 국토분열을 끝내고 국가재통일을 그 국책으로 삼았다. 물론 민진당 집권후반기에 통일강령과 통일위원회를 종지시켰지만 폐지한 것이 아니었다. 넷째로 분열된 쌍방은 각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신봉하였고,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쌍방이 다른 발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다. 다섯째, 분열된 쌍방은 모두 국제강권의 개입에 따라서 쌍방의 교류와 통일은 열강의 권력평형에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분열된 쌍방이 파생시킨 중대한 문제, 예를 들면 주권, 영토, 계승 등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에서 일찍이 볼 수 없다.<sup>13)</sup> 분열국가모델 이론의 시발점은 헨더슨(Gregory Henderson), 레보우(Richard Ned Lebow) 및 스테싱어(John G. Stoessinger) 등이 시작하였다.<sup>14)</sup> 헨더슨은 분열국가의 초기의 높은 적대감, 상호불승인 및 무력으로 상대방을 전복할 의도를 가지다가 점진적으로 상호 묵인, 공존, 나아가 이데올로기 및 군사충돌의 저하로 나아가며, 그 결과 인적 교류가 진행되어 적극적인 화해의 단계를 거쳐 밀접한 교류, 공동의 대외원조, 최종적

8) 楊開煌, 『出手, 胡政權對台政策初探』, 臺北: 海峽學術, 2005, 27쪽.

9) 양안관계와 중국의 對대만정책의 연구의 이론과 방법은 石之瑜, 『兩岸關係概論』 臺北: 揚智叢刊, 1998年;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年; 楊開煌, 『出手, 胡政權對台政策初探』, 臺北: 海峽學術, 2005年. 국제이론과 관련하여 Paul R. Vioti,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 Theo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and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W. Norton Co. 1997).

10) 高明, 「从政和理论探索两岸争得的条件与困境」, 包宗和, 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关系理论』, 臺北: 五南, 1999, 43-47쪽

11) 앞의 책.

12)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6쪽.

13) 張五岳, 「分裂國家模式之探討」,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79-90쪽.

14) 앞의 책.

으로는 느슨한 정치통합에 도달하여 통일을 실현한다고 인식했다.<sup>15)</sup> 대만학자 웨이웅(魏鏞)과 취우홍다(丘豪達)는 1970 년대에 분열국가개념을 운용하여 양안관계의 연구영역을 설명했다. 나아가 웨이웅은 다체제국가이론을 발표했다.<sup>16)</sup> 대만 단장대학(淡江大學) 대륙연구소 소장 장우위에(張五岳)는 양안과 동서독, 남북한을 비교하여 분열국가의 통일정책을 비교하였다. 그는 독일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해서, 쌍방은 유엔헌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화해결원칙을 준수하며, 상호 평등한 대우, 외교상 이중승인과 이중대표문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쌍방의 관계 정위는 일종의 특수 성질의 내부관계로 국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양안관계에 있어서 비록 민간교류는 밀접하지만 정치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즉, 주권의 선포와 관할권의 행사에서 일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우위에 는 헨더슨의 모델을 양안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베이징의 태도라는 것이다. 즉 베이징은 대만이 베이징과 대등한 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sup>17)</sup>.

대만대학 우위산(吳玉山)교수의 대소정치실체모델(大小政治實體模式)이론은 실력의 차이가 결정적인 관건이다. 소련이 해체된 후에 구소련 공화국 14 개국가와 러시아 연방간은 권력이 비대칭적이라는 데 착안하여, 대국이 소국에 주권을 요구하고, 대국의 정책은 확정적인 것으로 소국의 의지를 굴복시킬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소국은 대국에 대해서 균형(balancing) 혹은 편승(bandwagoning)이라는 두 종류의 전략을 펼 수 있다고 본다. 균형과 편승에 대한 개념은 월트(Stephan M. Walt)가 연맹의 기원을 연구할 때에 제기한 것이다.<sup>18)</sup> 권력의 비대칭과 대국의 주권요구라는 상황속에서는 소국이 대국에 대해서 펼 수 있는 정책은 균형과 편승 간에 한정지워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국의 기본적 태도는 상수이며 그 결과 대국과 소국관계의 주요 변수를 결정하는 것은 소국이 균형과 편승간의 전략 선택이라는 것이다. 양안간에 있어서 대만의 전략은 첫째 양안간 권력의 비대칭이 두드러진다. 베이징이 대만에 대해서 주권을 요구하는 정황하에서 산출된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대만은 중국대륙에 대한 전략은 편승과 균형이라는 두 가지 길 뿐이다. 둘째 양안간 경제발전 차이가 크게 난다면 대만은 균형에 무게를 둘 것이다. 셋째 미국이 대만을 지지해서 베이징의 압력에 대항한다면 대만은 균형이라는 선택이 더 명확할 것이다. 넷째 대만 내부의 서로 다른 정치단체와 정치세력은 각기 서로 다른 대륙정책을 주장한다. 어떤 쪽은 균형이며 어떤 쪽은 편승을 추구한다. 이러한 정치단체와 정치세력의 상대적인 역량은 대만 사회가 경제와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은 후에 나타난 것이다.<sup>19)</sup> 1987 년부터 2008 년까지 특히 민진당 집권기(2000-2008)는 비교적 균형쪽으로 정책을 취했다. 2008 년 국민당 마잉주 집권후부터 편승쪽으로 기울어졌다. 대소국실체모델(大小國實體模式)은 권력 비대칭 이론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패권안정이론(hegemony stability theory)에서 강조하는 것은 패권 국가의 유무하에서의 안정과 불안정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권력균형(balance of power)은 오히려 전쟁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제질서의 평화안정이지 특정한 국가의 정책이 아니다. 양안간의 권력비대칭은 중국의 대(對) 대만정책 산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5) 앞의 책.

16) 앞의 책.

17) 앞의 책.

18) 吳玉山, 『抗衡或扞從兩岸關係新詮』, 台北: 中正書局, 1999, 18-21 쪽.

19) 吳玉山, 「臺灣的大陸政策: 結構與理性」, 앞의 책, 164 쪽.

게임이론(Game Theory)은 사회 과학, 특히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응용 수학의 한 분야로 생물학, 정치학, 군사전략, 컴퓨터공학, 철학에서도 많이 응용된다. 게임이론은 참가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가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떻게 매순간 행동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은 게임중에 있는 개체의 예측행위와 실제행위를 고려하고 아울러 그들의 최적화 전략을 연구한다. 구체적인 경쟁 혹은 대항성질의 행위를 게임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행위중에 투쟁 혹은 경쟁에 참가하는 각자는 서로 다른 목표 혹은 이익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자의 목표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는 필수적으로 상대방의 가능한 행동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유리한지 아니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지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 생활중의 바둑, 포커게임과 같다. 게임이론은 게임중에 각 상대방이 합리적 행위방안이 존재하는지 합리적인 행위방안의 수학적론과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를 연구한다. 그 중 가장 흥미있는 예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다. 많은 학자들이 게임이론으로서 양안관계의 구조를 탐구한다. 예를 들어 왕위링(王玉玲)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양안관계로부터 대만의 통일과 독립문제를 탐구한다.<sup>20)</sup> 그러나 게임이론학자들이 습관상 사용하는 부호언어는 게임이론을 사용하지 않은 학자들과의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sup>21)</sup>

## 2. 국내정치 위주의 접근

양안관계는 필연적으로 대만과 중국대륙 각각의 정치적 국면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영향의 근원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제를 통해서인지. 그리고 쌍방 상호 대응의 정책(중공 대(對) 대만 정책과 대만 대(對) 중공정책)에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중국대륙의 후기 전체주의적 권위주의(post-totalitarian authoritarianism)는 대만의 신흥민주주의체제와 비교해볼 때 정책에 대한 결정에 거대한 압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정치체제가 쌍방의 협상능력과 태도 편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위산 교수의 선거표극대화모델(選票極大化模式)을 들 수 있다.<sup>22)</sup> 대만은 대륙에 대한 정책에 두 개의 지향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통일과 독립의 문제고(정체성, 認同), 다른 하나는 경제와 안전의 충돌(이익 스펙트럼)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만의 민의는 상당할 정도로 스펙트럼의 중앙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정당은 선거표를 고려하기 때문에 대만의 대(對) 중국대륙정책은 점진적으로 중앙으로 접근한다. 이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난 18 대 대선때 양당의 공약은 큰 차별성이 없었다. 이 모델은 대만의 민주정당 경쟁체제가 탄생시킨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sup>23)</sup> 우위산 교수는 대소정치실체모델(大小政治實體模式)의 견해를 차용했는데 기본적으로, 만약 대만의 정당이 독립과 안전을 비교적 중요시 한다면 중국대륙에 대한 대만의 태도는 대항(抗衡)적이 될 것이고, 비교적 통일을 중시한다면 중국대륙에 호종(扞從) 편향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대만은 1980 년대에 양안간 경제무역 교류를 개방한 후에 무역과 투자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했고, 그 규모 역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대만의 경제무역관계는 크게 두 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민간과 정부의 보조가 불일치하는 것이고, 둘째 경제무역 왕래는 고도의 정치적

20) 王玉玲, 『由兩岸關係探討台灣的統獨問題: 以博弈理論析之』, 臺北: 桂冠, 1996.

21) 吳秀光, 「兩岸談判之結構分析: 由博弈理論出發」, 앞의 책, 111 쪽.

22) 吳玉山, 「臺灣的大陸政策: 結構與理性」, 앞의 책, 164 쪽.

23) 앞의 책, 203 쪽.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심지어 대만의 국가안전과 상관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의 대(對) 중국대륙 경제무역 정책의 동력, 근원과 모순을 탐구해야 하며, 단지 경제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내정과 대외경제무역 정책의 연쇄반응으로부터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국가연구접근법(國家研究途徑)의 이론을 적용하며, 1980년대 이래로, 정치경제학상에서의 국제와 사회관계를 응용한다. 국가연구접근법의 특색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사회능력과 자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울러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서 국가발전과 정책제정의 상수와 변수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정치심리학은 일종의 학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학(跨學)의 학술영역이다. 심리학과 정치학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인류가 정치에 있어서의 사고, 정서 및 행위를 연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정치심리학은 심리학을 중앙영역으로 하여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심리학이라 부를 수 있다. 정치심리학의 연구 영역 역시 인류학, 인지심리학, 인격심리학, 사회학, 정신병학 그리고 비교적 소원한 영역인 경제학, 철학, 미술 등도 다룬다. 정치심리학은 20세기초에 탄생했는데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등은 심리학방법을 차용하여 정치상(象)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1930-40년대에 이르러 『정신병리학과 정치(Psychopathology and Politics)』, 『권력과 인격(Power and Personality)』 등의 출판에 따라 이 학과가 비로소 성립되게 되었다. 정치심리학은 권위주의적 인격(威權人格)과 국민성격(國民性格)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중국정치심리학 방면에는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국민성격에 관한 연구였다. 양안관계방면에는 예를 들어 국민당이 철저히 대만화 된 후에 대륙과 타이베이 간은 한 순간에 인정관계(人情關係)로부터 주권관계 문제로 전화되어 여러가지 오해를 낳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대륙 지도자들의 천조사유(天朝思维), 내전사유(内战思维) 등 모두 중국대륙과 대만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발생시켰다. 양안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심리학은 채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실험법, 내용분석, 사회조사, 문헌분석 등이며 대만대 스펜위(石之瑜)교수는 비판적 심리연구 분석을 사용하고 있다.<sup>24)</sup>

### 3. 국제환경 위주의 접근법

국제환경 위주의 접근방법이다. 양안관계의 외재(외부)환경은 양안쌍방이 완전히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일대일소(一大一小)의 구조하에 처해있기 때문에 만약 외부적인 강력한 개입이 없다면 양안관계는 현재의 상태로 처해 있기는 불가능하다. 외재역량은 줄곧 매우 높은 정도로 양안관계 상태를 결정했기 때문에 국제관계이론을 운용하여 양안관계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보편적이다.<sup>25)</sup> 국제환경요소와 양안관계 영향을 탐구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신)현실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이다. 전략적 삼각이론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에 속한다. 예를 들어 베이징 대학의 리이후(李義虎)교수는 국제정치학중의 실현실주의(힘의균형), 신자유주의(상호의존과 제도), 구성주의(규범과 제도)를 양안관계의 력, 이, 리(力、利、理)의 관계로 귀납했다.<sup>26)</sup> 대만대학 명취정(明居正)교수는 체계이론을 양안관계에 응용했다. 그가 생각한 체계의 이해는 첫째 국가층차상을 초월하는 혹은 국가층차 밖의 요소의 총화이며, 둘째 국가행위에 대한 국제체계의 구조와 변동이 산출하는 영향을 의미한다. 전자는 외재요소학파로 칭하고 후자는 체계영향학파로 칭한다<sup>27)</sup>

외재요소파들의 인식은 체계, 계통(系統) 혹은 환경을 막론하고, 계통층차상의 요소는 지리위치, 국제상호작용과 연계관계, 국제체계의 구조, 층급지위, 과학기술과 극화상태(極化狀態) 등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많은 외재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요소다.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기본적으로 역사연구와 국제정치중의 현실주의의 혼합체를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up>28)</sup>

체계영향파로서 중국대륙의 양안전문가 신치(辛旗)가 그의 주요 작인 「국제전략환경의 변화 및 대만문제(國際戰略環境的變化及臺灣問題)」라는 논문에서 소련 해체후에 국제구조는 다시 재조직되기 시작했지만, 아태지역의 질서구조는 아직까지 네 곳만 이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즉, 한반도, 남중국해, 인도차이나 반도, 대만해협이다. 그는 1995-6의 대만해협위기는 냉전후 아시아 구조 조정의 가장 명황이 드러나는 표지였으며, 양안관계의 상호작용과 냉전후 중미관계의 재관계설정과 결부시켜 파악한다.<sup>29)</sup> 그는 체계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구조변동론(國際格局變動論)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설은 소련 해체후에 중국대륙의 역량은 강해지고, 지위는 높아짐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아시아 구조와 미국과의 관계 재편성으로 보고 있다.

명취정(明居正)은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국제체계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조현실주의를 기초로 한 국제관계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그는 1991년 소련해체 및 동구유럽의 해체 이후 국제체계가 가져온 충격을 고찰하였고, 국제상으로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및 중국대륙으로 조성된 일초다강의 구조를 형성했다고 본다. 각국의 목표는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쟁취하는 것이므로 각 국가의 관계는 합작과 경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미래 아시아의 중대한 특색은 첫째 미국이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구비할 것이고, 중국대륙과 일본은 대항을 원치 않으며, 미국은 다시 미일 안보관계를 재조정하고, 미래에 중국대륙의 역량은 일본을 압박할 정도로 더욱 더 성장할 것이다. 이는 미국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대륙에 대해서는 그 한도가 있으며, 대만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개혁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화평연변(peaceful evolution)으로 발전하길 희망하며 아울러 국제상 책임있는 국제성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권, 경제, 군수(軍售) 및 대만 등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대만카드는 가장 위력적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대만의 전략, 외교, 및 대륙정책방면에서 세계의 선택지가 남는다. 첫째, 중국대륙에 완전히 경사되어, 암암리에 미국, 일본과 대항하거나 둘째, 완전히 미일에 경사되어 은연중에 중공과 대항하는 것이다. 셋째 이 양자간에 처하는 것이다. 만약 대만이 이 양자간에 처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지난한 일이며 지혜를 필요로 한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미관계에서의 슬기로운 균형을 필요로 한다. 중미관계가 좋다면 적극적인 행위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중미관계에 긴장이 초래될 때는 가장 최후에 한쪽편을 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러나 현실주의를 기초로하는 국제체계를 연구방법으로 삼는 것은 결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통상적으로 국가 혹은 정부는 일원화 된 행위자(unitary actor)로 설정한다. 첫째

27) 明居正, 『國際體系理論與兩岸關係』,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368 쪽.

28) 앞의 책.

29) 辛旗, 「國際戰略環境的變化及臺灣問題」, 北京: 战略与管理, 第04期, 1996,

<http://blog.boxun.com/sixiang/taiwan.htm>

24)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24 쪽.

25) 楊開煌, 『出手, 胡政權對台政策初探』, 臺北: 海峽學術, 2005, 36 쪽.

26) 앞의 책.

정책결정 과정에서 인지(認知)의 문제가 결부된다. 둘째 비록 전술한 문제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책결정의 실수, 집행시의 실수 등 문제를 남기고 있다. 셋째 객관적인 환경변천, 주관적 인지 및 정책 수정문제는 통상적으로 시간차이(time lag)가 존재한다. 다섯째 예측에 있어서 체계론이 비평받는 이유중의 하나는 숲은 보고 나무는 못 본다는 것이다. 이로써 양안관계를 연구할 시에 양안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III. 양안관계 연구의 쟁점: 치권에서 주권으로 다시 정체성으로 쟁점화

#### 1. 중-미간의 쟁점: 하나의 중국정책(One China Policy)과 하나의 중국원칙(One China Principle)

중국대륙의 다수의 학자들은 현재 중국대륙의 발전추세는 백년이래로 전략적 기우(機遇)기로 파악하지만 도전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이러한 도전적인 문제들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순수한 중국내부의 문제로서 예를 들자면 4차문제<sup>30)</sup>, 부패, 환경오염, 도덕진공 등의 문제가 있지만 이는 중공지도부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둘째 국제적인 도전으로서 미국의 중국대륙에 대한 견제와 주변국가들과의 마찰 역시 힘들지만 대응할 수 있다고 파악하며, 최악의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중국대륙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번째 유형의 경우, 국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고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만문제다. 내부와 외부의 문제가 뒤섞여 복잡하고, 중공의 대만에 대한 장악능력도 유한하다. 또 만약 대만문제를 방치할 경우 리홍창처럼 역사의 죄인이 되어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중공의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고도의 전략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중미간의 문제, 일본식민문제, 대만의 내부문제 등이 뒤엉켜 있다. 특히 중공이 인식하는 가장 민감한 신경은 미국이 자극하고 있으며, 양안문제의 근본적인 미해결을 미국의 개입으로 인식한다. 이는 중미 국교 수립시 덩샤오핑의 관점이나 지금 중공지도부의 관점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중국대륙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양안간 일대일소(一大一小)로서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인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만약 제3자의 강력한 개입이 없다면 대만은 이미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status quo)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선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에는 대략적으로 세 개의 시기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제1기로서 국공내전에서 1972년까지다. 국공내전이 발발하자 미국은 국민당의 편에 섰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미7함대가 공산진영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해협에 개입하여 장제스를 지원했고, 1954년에 미국은 대만과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공과는 적대적 관계에 섰다. 이 시기는 중미 양국은 상호 군사대치기에 있었다.

제2기로는 1972년부터 1989년 기간이다. 이 기간은 대만문제가 주변화 된 시기다. 대략적으로 1972년 닉슨의 중국대륙 방문부터 1989년 천안문 사태까지의 기간으로 중-미간 대만문제에 관한 논쟁은 소강상태에 있었다. 중미 양국은 소련견제에 대한 공통된 이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미국은 중공을 끌어들이기 위해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을 묵인하고, 유엔(UN)에서 장제스(蔣介石)는 축출되어 그 정통성에 타격을 입었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enger)가 1971년 8월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저우언라이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1972년에는 닉슨(Richard Nixon)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공을 방문하여 마오쩌둥과의 정상회담, 저우언라이와 회담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교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결국 미국은 중공의 대만에 대한 요구사항인 단교, 철군, 폐약을 약속하고 1979년 양국은 관계정상화를 이뤘다. 이 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만들어 낸다. '하나의 중국정책'은 1972년 상하이 공보, 1979년 중미수교 공보, 1981년 817공보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지만 이는 중공의 '일중원칙'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의 중국정책'의 창시인은 헨리 키신저다. 미국은 대만을 중공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지만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만문제를 단순히 중미간의 문제로 파악한다면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과 중공의 '하나의 중국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는 곧 양안간의 문제해결로 귀결될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국교 수립시 성명에 나타난 "대만문제"의 입장<sup>31)</sup>

	중국주권의 내용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	중화인민공화국과 수립한 국가	수교국 수
1	승인(recognize)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로 중국을 승인한다	승인(recognize)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성, 혹은 불가분의 일부분.	몰다이크, 네팔, 보츠나와, 볼리비아, 이스라엘, 한국, 바하마 등	총 39개국
2	승인(recognize)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중국을 승인한다	인지(acknowledge), 그러나 중국대륙은 번역시에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개 성, 혹은 불가분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승인한다고 번역한다.	미국 <sup>32)</sup>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태국, 피지, 서사모아.	총 8개국
3	상동	유의(take note of):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한 개성 혹은 불가분의 일부분	캐나다, 이탈리아, 칠레, 브라질 등	총 16개국
4	상동	이해와 존중(understand and respect):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영토와 불가분의 일부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개성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	일본, 필리핀, 네덜란드	총 3개국
5	상동	수교성명에서 대만문제를 언급하지 않음	북한, 헝가리 등	총 38개국
6	성명중에 중국주권부분 무언급	무언급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총 65국

30) 도농차, 빈부차, 동서차(연해와 내륙), 관민차(관방과 민간)

31) 羅致正/宋允文, 『結構一個中國國際脈絡下的政策解析』, 台灣知庫, 2007, 4쪽.

도표에서 보듯이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베이징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승인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대륙과 대만을 포괄한다. 미국과 일본은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인이라는 것을 승인하지는 않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인이라는 사실"을 인지(Acknowledge)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일본은 '이해한다, fully understand', '존중한다, respect'는 단어를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영토주권의 완성에 대한 권리가 있다. 미국은 비록 중국과의 3개 공보에서 일본은 중일수교조약에서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인이라는 것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은 중국의 일부인이라는 사실을 승인"했다. 여기서 '중국'이란 무엇인가가 도출되고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문제'를 확립했다. 대만의 지위를 둘러싸고 대만과 '중국'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가들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만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모호한 태도를 취해야 실질적으로 대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리적으로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성이거나 일부분임을 승인한다면 각 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경우에 법리적으로 베이징 중앙정부의 묵인 혹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각국이 스스로를 옹가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히 "하나의 중국"은 민진당에게는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테를 조이는데 사용하는 주문인 긴고주(緊箍咒)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진당은 아직까지 1992년 양안양회가 홍콩회담에서 합의한 92공식(1992 Consensus) 즉, "양안은 각자가 구두의 방식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건지"한다는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2008년 마잉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안양회의 공식회담이 회복되고 에크파를 비롯한 21개 협정을 체결하고 양안관계를 진전시킨 데에는 '92공식'의 인정과 반타이두라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92공식자체에 대해 국공양당은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만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민진당의 92공식의 인정 여부는 2016년 대만총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제3기로는 1989년 천안문 사태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는 다시 대만문제가 다시 부각된 시기이며, 2010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정책을 선언하고 나서 다시 대만문제가 중미간에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인해서 중공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고, 무엇보다도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중공의 전략적 가치와 지위가 그만큼 떨어졌으며, 미국으로서는 대항해야 할 적이 없어졌다. 1980년대 말에 이르면 미국은 이미 중국대륙의 굴기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결과 중국굴기로 인한 미국의 걱정과 맞물려 대만문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미국은 다시 대만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으로서 중공의 입장을 설득시키고, 대만에 대해서 '대만관계법'을 빌어서 대만을 이해시켰다.

대만문제는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서 체계적으로 중국대륙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다. 만약 미국이 대만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면 서태평양상의 전략적 국면에 구멍이 뚫린다. 이는 한국,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의의를 다시 고려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베이징의 무력사용을 묵인한다면 국제상의 위신은 실추될 것이고, 아시아 국가들 역시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는 낮아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중국대륙의 영향력은 급속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다. 일본은 정치문화상으로 친미며, 외교와 군사전략상에서도 미국을 추종한다. 일본은 대만문제를 빌어 중공을 견제하고자 한다. 일본은 줄곧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초를 담당하며 미국을 뒷받침으로 삼아 동아시아에서의 영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여 중공을 견제하고자 한다. 현단계에서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의 성격을 재정의 분담 (burden sharing)에서 실제상의 군사력량의 공유 (power sharing)로 바꿨고, 나아가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 제1항의 군대불보유를 삭제하고 제2항의 자위대를 자위군(自衛軍)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대만문제에 대해서 본래부터 지연, 문화, 역사적 연유를 지니고 있어 대만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그 어떤 국가들 보다는 색다른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일본과 대만은 역사상 일종의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대만문제를 빌미로 동중국해의 이익을 확장하고 공고화하려고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일본은 대만해협과巴士海峡(巴士海峡)상의 교통안전, 류우큐우군도의 안정, 조어도(釣魚島)의 주권문제, 동지나해 배타적 경제수역등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는 만약 양안이 통일된다면 자신들의 이익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대륙은 절대우세의 위치에 서게 된다.<sup>33)</sup> 이러한 결과 때문에 일본우익세력들은 타이두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리등웨이(李登輝)가 말하길, 대만에 만약 위기가 출현한다면, 심지어 중공에 의해서 병탄된다면 대만 주변해역은 장차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일본은 경제, 군사상 고립에 빠져 위협을 받게 되어 전략적으로 대만의 존재는 일본에게 중요한 의의를 비니고 있다.<sup>34)</sup>

일본의 입장에서 대만은 단지 남쪽의 작은 섬이 아니며, 일본의 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일본의 생존과 명맥에 관계된 중요한 병풍이다.<sup>35)</sup> 대만은 2차대전 종결까지 51년의 식민지배를 겪었고, 대만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다. 일본의 인국중에서 대만처럼 친일적이고 기본적 이익이 비슷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우파들은 대만을 보호하는 것과 일본을 보호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만약 중공이 대만을 병탄한다면 곧바로 조어도(釣魚島)는 중공의 수중에 떨어진다. 만약 조어도가 중공에 의해 점령된다면 일본은 곧바로 남방항해선이 봉쇄당하는 위기를 겪게 된다. 이것이 바로 리등웨이(李登輝)가 말한 대만해협은 '일본의 생명선'이라는 논지다. 이 결과 대만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이는 또 한국의 안전과 연계되어 있다. 또 대만의 남쪽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대만과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피하다.<sup>36)</sup> 이런 결과로 인해 국제상, 정치상,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지만(recognize)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와 불가분할의 일부인다는

32) 1972년 미국은 상해커뮤니케에서, The United States side declared: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s that all Chinese on either side of Taiwan Strait maintain there is but one China and that Taiwan is a part of China.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does not challenge that position 이라고 밝혔다.

33)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卷三)』, 北京:人民出版社, 1993, 9쪽.

34) 李登輝, 『臺灣的主張』, 臺北:源流, 1999, 246쪽.

35) 앞의 책.

36) 和泉台郎, 李毓昭譯, 『日美台三國同盟』, 台北:晨星出版, 1999, 203쪽.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표술은 이해와 존중 (understand and respect) 으로 표시해 수사학적 으로 다루고 있다. 종합하자면 양안관계의 일방인 대만에 대해서 중국대륙과 미국, 일본 등 이 경쟁하는 게임을 양상을 띠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만해협에 대한 대중전략의 기 조는 화이불통(和而不統),이대제화(以臺制華)며, 대만은 미국 무기의 성능여부를 떠나 미국 의 안전보함에 가입하기 위해서 무기구매라는 보험비를 지불하고 있고 또한 이는 대만인들 에게 일종의 심리적 보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만은 안전에 있어서는 미국의 기조에 부응 한다. 미국에게 있어서 양안간의 통일은 대만카드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대만의 독립은 대만의 '물귀신작전'으로 전쟁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만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상유지다. 그러나 이 현상유지는 미국이 정의하는 현상유지다.<sup>37)</sup>

## 2. 양안관계 쟁점: 주권과 정체성

양안관계 연구에 있어서 국제적 환경요소가 주로 미국과 일본이었다면, 대만내부에서도 과거와 다른 쟁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1949년부터 1996년까지 주로 양안간의 쟁점은 물론 서로 상대방을 부정했을 지라도 '하나의 중국'(대륙과 대만을 포함)의 경영을 둘러싸고, 모든 중국인을 대표하여 양당(국민당과 공산당)간 '하나의 중국'을 누가 다스리는가하는 치 권(治權之爭)의 경쟁이었다면, 1996년부터 현재까지, 특히 1996년 대만의 첫 총통직선제 실 시와 더불어 양안간에는 주권(主權之爭)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즉, 대만도 중국대륙을 존중 해줄테니 중국대륙도 대만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 이다는 논리를 편다. 엄밀히 말해 중국의 입장은 치권지쟁은 용납할 수 있는 문제나 주권지 쟁은 상당히 감내하기 어렵다. 또한 대만은 민주화, 본토화를 거치면서 타이두의 흥기를 가 져왔고 이는 다시 신분상의 정체성(認同)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서는 태양화 운동 등 대만내부는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1) 양안분기(分歧)의 홍(紅), 남(藍), 녹(綠)의 입장

### 1)중국공산당의 입장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로 중공은 대만에 대한 일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 다. 즉, 자고이래로 대만은 중국의 영토고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중국주 권은 분할할 수 없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견지하였다.1993년 중공이 발표한 『대 만문제와 중국의 통일(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및 2002년 2월 국대판(國台辦)에서 발표한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문제(一個中國原則與臺灣問題)』 백서를 발표했다. 『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백서에서 대만은 중국과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임과, 대만문제의 유래,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상관정책을 계통적으로 정리해 발표 했다.<sup>38)</sup> 기본적으로 중공은 중국군대사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침략, 항일, 모욕의 역사 로 인식하고 중국인민이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분투한 역사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대만문제의 출현은 역사가 뿌려놓은 유산이며, 대만문제는 민족정당성 과 국가주권에 관련된 문제로 파악한다.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자고(自古)로 즉 중국에 속한다. 역사상 대만은 하나의 국가가 되어 본 적이 없다. 대만은 옛날부터 이주(夷洲), 유구(流求)로 칭해왔다.1700 년전 삼국시대 심 영(沈瑩)의 임해수토지(林海水土志)등에 이와 같은 지명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가장 이른 시 기의 대만에 관련된 지명이다. 중공의 인식은 대만은 대만해협을 건너온 사람들이 대만을 남으로부터 북으로 서로부터 동으로 개척해 나간 역사로 간주한다.<sup>39)</sup>

문화상으로도 ,대만은 중국문화권이고 혈연,언어,풍속습관 모두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고 파악한다.예를 들어 대륙과 같은 염황의 자손(炎黃子孫)이며 다시 골육상잔을 해서는 안 되며, 중국인은 중국인과 싸우지 않아야 하고, 양안교류합작은 양안경제번영을 일으켜 중화 민족에게 축복이며 중화의 아들딸들이 공동으로 창조한 5 천년 찬란한 문화라고 주장한 다.<sup>40)</sup>

국제법상 역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국제사회는 오직 '하나의 중국'을 승인한다. 1949 년 10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화민국을 대체해서 건립되었고 중국의 유일합법 정부와 국제상의 유일합법 대표가 되었으므로 중화민국은 이로부터 그의 역사적 지위를 마 감했다고 파악한다.이것은 동일 국제법상 주체가 변화가 없었다는 정황하에 신정권이 구정 권을 대체했다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주권은 결코 변화 되지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은 당연히 중국의 주권을 향유하며, 아울러 1971 년 유엔의 2758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sup>41)</sup>

주권문제상,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을 막론하고 중국영토의 법률지위 를 지니고 있으며 주권은 한 국가의 전체 인민에게 있는 것이지 일부분 혹은 일부분 지구의 인민에 주권이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대만에 대한 주권은 대만내의 전중국인민을 포함한 것이지 대만인민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sup>42)</sup> 이런 이유로 중공은 대만이 주권재민과 국민투 표 방식으로 지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양안은 아직 통 일되지 못했으나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부분의 지위"라는 사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편다.1945 년 이후, 대만은 외국의 식민지가 아니며 외국의 점령하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르 민족자결권 행사의 문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공의 주장은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며, 대만의 전도는 오직 한가지 길 뿐이다. 그것은 바로 대륙과 통일을 이루는 것 뿐이다. 그런 결과 '하나의 중국원칙'아래에서 어떤 문제라도 토론했을 수 있으나, 대만독립, 두 개의 중국, 양국론, 심지어 일변일국은 모두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배하므로 반대한다. 국제상에서 대만의 신분, 경제적, 사회적 대외 활동공간, 대만의 지위 등 모두 하나의 중국 틀(框架) 내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대만이 주장하는 민주와 제도의 차이는 통일을 방해하는 빌미일 뿐이라고 중공은 인식한다. 2005 년 중공은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켜 정책을 법률적 층차로 전환시켜 대만의 무력동원 가능성을 법률로 못을 박았다. 즉, 전쟁위협을 방식을 빌 어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희망한다.<sup>43)</sup> 그러므로 중공이 주장하는 평화통일 및 하나의 중국

37) 제임스 켈리(James Kelly) 국무부 차관보는 2004 년 4 월 21 일 대만관계법 25 주년 미국회 정문화 보고에서 양안정책에 관한 핵심원칙을 발표했다. 그는 반복해서 현상유지(status quo) 개념을 강조했다. 여기서 소위말하는 현상은 항상 변한다. 그러나 현상이라는 개념은 미국이 정의하는 현상(as we define it)이라고 밝혔다. James Kelly.2004, "The Taiwan Relations Act:The Next 25 Years." ,Testimony of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nd Pacific Affairs James Kelly at hearing held by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on April 21,2004.

38)『一個中國原則與臺灣問題白皮書』,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2002.

39)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1993.

40) 江澤民, 「為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奮鬥」의 중요講話. 所謂江八點, 1995年1月30 日

41) 『一個中國原則與臺灣問題』,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2002.

42) 앞의 책.

은 (一個中國)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과 실천의 중요한 구성성분이며 대만에 대한 기본국책(基本國策)이다.<sup>44)</sup>

## 2) 중국국민당의 입장

국민당의 기본입장은 '한지붕 두 가족'이다. 하나의 중국 아래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가족이 존재한다.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을 가리킨다. 국민당 및 범람진영<sup>45)</sup>은 대만과 대륙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대만은 당연히 중국에 속하며 하나의 중국하의 두 개의 대등한 정치실체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반대하지 않으며, 대만지위문제론을 반대한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 및 중일화약의 당사국은 모두 중화민국이며 대만관계법의 내용 역시 미국은 대만을 하나의 정치실체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1992년 8월 1일 국가통일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 「하나의 중국의 함의 (一個中國的含義)」를 통과시켰는데 중공이 인식하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지만, 범람진영이 인식하는 '하나의 중국'은 신해혁명으로 인해 1912년에 성립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 중화민국이며 그 주권범위는 전체중국이다. 그러나 현재의 치권(治權)은 타이핑진마(台澎金馬)에 한정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대륙 역시 중국의 일부분이다.<sup>46)</sup> 1949년부터 중국은 잠시 분열의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두 개의 정치실체로서 해협양안을 분치(分治)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국민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양안은 통일을 해야 하지만 현재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대만 2300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통일인지, 통일의 조건은 무엇이며, 통일의 속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당 내부의 일국양제파는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개혁파는 통일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칙상에 있어서 양안은 통일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의 함의」에 대해서 국민당은 비록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지만 내용은 다르다.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있었으며 이는 대략적으로 6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sup>47)</sup>

제 1 단계는 한적불량립(漢賊不兩立)의 단계로 양장시대(蔣介石、蔣經國)의 대륙에 대한 입장이 곧 한적불량립이다.

제 2 단계는 하나의 중국 두개의 정치실체 시기다.<sup>48)</sup>이 시기는 국제상의 변화에 부합하여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냉전해체, 천안문 사건 후, 미국의 대중공보외정책 및 리등웨이 개인의 요소로 인해서다.

제 3 단계로 두타이(獨台)<sup>49)</sup>로부터 타이두(台獨)로 이르는 단계다. 천쉐이벤이 현성적인 타이두 정책을 폈다면 리등웨이는 은성적인 타이두 정책을 펼쳤다.

43) Suisheng Zhao, “Strategic Dilemma of Beijing’s Taiwan Policy: Chinese Nationalism and the Making of the Anti-Session Law”, in Peter C.Y. Chow ed., *The “One China” Dilemm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 208

44)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卷三)』, 北京:人民出版社, 1993, 59 쪽.

45) 범람(泛藍)진영: 중국국민당과 그로부터 분열해 나간 신당(新黨), 친민당(親民黨) 및 그 정치입장이 유사한 단체, 기관을 말한다. 국민당의 당깃발의 색깔이 남색으로 인해서 흔히들 남색진영으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각 당, 단체 사이에는 어떠한 조직적 관계는 없다.

46)『關於一個中國的含義』,國家統一委員會, 1992.

47)吳恒宇, 『現階段中共對台文攻武嚇的研究 (1995-2001)』, 臺北: 大屯出版社, 2001, 12-14쪽.

48)『人民日報』, 1997년 3월 1일.

49) 중화민국은 주권독립국을 의미하며, 중공방면에서는 이를 B형 타이두라 일컫는다.

제 4 단계는 하나의 중국 두 개의 대등한 정치실체(一個中國、兩個對等政治實體)로, 1990년 6월 리등웨이가 주재한 국시회의(國是會議)에 확정한 것으로 양안은 통치권을 지닌 정치실체며, 양안지위(兩岸地位)는 동원감란시기(動員戡亂時期)가 종식되었으며 일방적인 내전종결을 의미한다.<sup>50)</sup> 이는 천안문사건, 소련의 붕괴, 1990년 독일의 통일이라는 국제적 환경이 작용했다. 이어 국민당 내의 보수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통일강령 통과시켰으며, 1992년 말 구왕회담(辜汪會談)을 하기전에 이미 대만은 하나의 중국하의 두 개의 대등한 정치실체라고 밝혔다.<sup>51)</sup>

제 5 단계는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다.

1999년 7월 9일 리등웨이는 독일의 소리(德國之聲)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중국대륙간의 관계를 피력했다. 즉 대만과 대륙의 관계는 1991년 헌법개정 이후 이미 국가와 국가의 관계며 최소한 특수한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밝혔다. 비합법정부, 반란정부, 혹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모두 하나의 중국의 내부관계라고 밝혔다.<sup>52)</sup> 1999년 7월 23일 샤오완창(蕭萬長) 행정원장은 AIT 주석 리처드 부시(Richard Bush)와의 만남에서 특수한 국과와 국가관계에서 특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전례가 없는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라고 밝혔다.<sup>53)</sup> 그러므로 '특수'는 대륙과 대만의 최소한 교집적인 부분이다. 즉, 문화, 역사, 혈연상의 특수관계다.

2000년 3월 2일 리등웨이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각자 표술함을 다시 밝혔다. 그는 “우리의 중화민국은 중국이고 대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부른다.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표술한다”고 밝혔고, 다시 중화민국은 하나의 국가로 주권독립국가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서 당신도 하나의 국가고 우리도 하나의 국가라고 밝혔다. 이 함의는 주권상 대륙과 대만은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sup>54)</sup>

마잉주 총통이 바라보는 양안분기의 원인은, 국공내전의 남겨놓은 역사적 문제이며, 현재 중화민국의 유효통치구역은 대만, 평후, 진먼, 마주며, 아울러 중화민국의 영토주권은 중국대륙도 포함됨을 견지함과 아울러 중화민국은 주권독립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2008년 3월 29일 마잉주는 대만 『자유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중화민국의 강역은 중국대륙을 포함하는가”의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당연히라고 밝히면서 중화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총통은 헌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마잉주는 다시 과거의 '두 개의 중국'으로 회귀했다. 1993년 국민당의 단계적인 두 개의 중국 정책과 상응한다. 이는 분명히 두 개의 중국 함의를 드러낸 것이다.

마잉주의 주권관은 일중헌법 프레임하에서, 양안의 주권은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통일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잉주의 신삼불정책(不統、不獨、不武)중에 부통(不統)이 의미하는 것은 치권(治權)의 부통이다. 부독(不獨)이 의미하는 것은 주권의 부독이다. 이것이 마잉주가 인식하는 양안의 현상이다. 마잉주의 삼불관점에 대해서 베이징은 2008년 12월 31일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灣同胞書) 30주년 기념식에서,

50)湯紹成, 『國民黨的政策與觀點』, 台北: 中央日報, 2010년 3월 29일.

51)『國統綱領』 및 1994년 『台海兩岸關係說明書』.

52) 대만행정원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big5/rpir/2nda\\_2.htm](http://www.mac.gov.tw/big5/rpir/2nda_2.htm)

53)黃爾璇, 「未來台灣政局的分析」, 『台灣e廣場』, 2008년 7월 8일.

54)鄭欽仁, 「國家定位與十五年來的台中介涉-一中原則, 一中各表和九二共識」, 『台灣安保通訊』, 第9期, 2009년, <http://www.wufi.org.tw/wufisource/tjsf09/>



후진타오는 대만정책 방침 즉, 후6점(胡六點)을 발표했다. 이는 중공의 대(對) 대만정책의 신강령이 되었다. 마잉주의 삼불에 대한 회응은 후1점과 후6점에 상세하게 밝혔다.<sup>55)</sup> 대륙과 대만은 비록 통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중국영토와 주권의 재건이 아니라 1940년대 중후기 중국내전이 남겨놓은 것이다. 아울러 양안은 통일전의 특수한 정치관계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군사신뢰기제를 만들어야 함을 밝혔다. 만약 양안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곧 정치대립의 해결이다. 그러므로 마잉주와 후진타오의 양안간 문제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마잉주는 이러한 사고의 결과로 첫째 2008년 집권 후에 그 동안 중단되었던 양안양회의 회담을 실시하였고 타이두 반대, 92공식의 기초하에서 양안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진행시켰다.

### 3) 민진당 및 범록진영의 입장

민진당의 기본입장은 국민당의 주장과 상반된다. 민진당 당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그 목적은 주권독립 자주의 대만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함이다.<sup>56)</sup> 대만의 주권독립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대만주권은 중국대륙에 미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로도 그렇고 현상적인 상태로 보아도 그렇다. 동시에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당은 전중국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허상에 매달려 중화민국 5권헌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장기간 국민당은 반민주적 통치와 특권으로 대만주권현실을 외면하고 도내에 분란을 야기하였으며, 중공이 대만을 엿보는 구실을 만들었고, 국제법과 국제정치현실을 위반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만인들로 하여금 국가의식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sup>57)</sup>

민진당 창당시의 주장은 '대만지위미정론'과 '인민자결이론'으로 주권독립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며, 국제법상의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은 결코 조약이 아니며 소수 국가의 공고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일본이 서명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1952년 중일화약(中日和約)에서도 일본은 대만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혔지 대만의 주권귀속을 누구에게 넘긴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결과로 범록진영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불완전성에서 대만문제의 근원을 따지며,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공내전이 남겨진 유물로서 대만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식한다. 대만은 확실히 일본으로부터 벗어났으나 그 앞길은 미확정적이다. 그래서 대만의 전도는 당연히 타이평진마 지구 2300만 대만인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다. 나아가 민진당은 1941년 중국정부의 대일선전포고를 부정한다. 대일선전포고는 국민당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국제효력을 구비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사실 타이두를 주장하는 다수가 국제법 전문가들로서 법률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만과 대륙의 역사로 볼 때 과거 중국대륙의 역대 대다수 왕조는 대만과의 통일은 하였으나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統而不治) 때문에 그 관계는 깊지 않았다.<sup>58)</sup> 그러므로 대만 4백년의 역사상 많은 외래정권이 대만에 와서 전변(轉變)이 빈번했고, 그 하나 하나는 일시적인 외래정권이었을 뿐이며 차별통치를 위주로 하였

다. 청의 대만 통치시기, 대만에 3년에 한번씩 파견되는 관리임관제도로 인해 관리들은 대만에 무심했고, 심지어 객심태(過客心態)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나라의 임관제도에 의하면 관리는 필수적으로 본관을 회피하여야 했다. 그 결과 대만에 온 관원은 민난어와 객가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 하급관리들의 호가호위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결과 민란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는 장기적으로 동탕에 휩싸여 삼년에 한번씩 작은 반란 3년에 한 번씩 큰 반란이 일어났다.(三年一小反, 五年一大反)<sup>59)</sup> 즉, 천록진영은 대륙의 왕조가 대만을 통치했지만 깊지는 않았다고 인식하나, 심록진영인 대만단결연맹, 건국당 등은 대만은 자고이래 중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대만이 대륙의 수중에 떨어진 것은 1945년 중화민국정부가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의 명령을 받들어 대만을 점령했을 뿐이며 청나라가 통치한 212년의 기본성격은 중국사가들도 인정하다시피 이족인 만주족이 대만을 침탈한 것일뿐이고<sup>60)</sup>, 1945년 10월 25일 중화민국정부는 일방적으로 대만을 중화민국판도에 편입시켰다. 그러므로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면 이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중화민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에 따라 중화민국은 중국대륙에서 도망나와 대륙 연안의 몇 개의 작은 섬으로 망명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만이 중국에 속한 것은 400년 역사중에 1945-1949년의 기간 불과 4년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는 비록 대만으로 천도해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중화민국에 속하는 영토는 진먼(金門), 마주(馬祖) 등의 도서로 중화민국은 진마국(金馬國)일 뿐이라고 주장한다.<sup>61)</sup> 그러므로 대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주권독립자주의 대만공화국 및 신헌법을 제정해야하며 대만전체주민이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록진영의 인식은 국제정치현실을 의식하여 대만은 이미 1949년에 독립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명칭은 중화민국이며 미래에 단지 헌법을 수정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각파의 논술이 어떻던지 간에 대만은 하나의 주권독립국가며,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외에 독립해 있으며, 각자의 영토는 상호 예측적이지 아니다는 것은 민진당 주류의 견해다. 대만과 중국은 이미 두 개의 국가며 역시 통일 역시 미래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공의 일국양제와 국민당의 일국양부(一國兩府)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민진당은 집권한 이후 중공과 현상변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을 의식하여 '하나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극과 극을 오갔다. 2000년 천셰이벤 취임연설시의 '하나의 중국'은 해협양안의 인민은 서로 같은 혈연, 문화, 역사 배경을 지닌 '미래의 중국'을 의미했다.<sup>62)</sup> 그러나 2002년 천셰이벤은 8월 3일 동경에서 거행된 세계대만동향회(世界臺灣同鄉會, 간칭 世台會)에 화상화면으로 처사를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첫째 양안은 일변일국이며 둘째 대만현상의 변화는 국민투표로 해야함을 밝히고, 2006년에 국가통일강령과 국가통일위원회를 종지(終止)시켰다. 이로부터 민진당의 중국대륙과의 통일문제는 실재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녹색진영의 대만지위에 대한 정위는 크게 이미독립(已經獨立), 아직미독립(尚未獨立)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미독립론(已經獨立)이다.<sup>63)</sup> 여기에는 당연독립설(當然獨立說)과 상태독립설, 진화

55) 胡锦涛在纪念《告台湾同胞书》30周年会上讲话。

2008年12月31日, <http://news.sina.com.cn/c/2008-12-31/132716956875.shtml>

56) 민주진보당, <http://www.dpp.org.tw/>

57) 민진진보당 당강, <http://www.dpp.org.tw/>

58) 史明, 『臺灣人四百年史』, 臺北: 草根文化, 1998, 90-110 쪽.

59) 陳豐祥, 『普通高級中學「歷史」』, 臺北: 泰宇出版, 2008, 49 쪽.

60) 『民衆日報』, 1995년 10월 26일.

61) 黃昭堂, 『黃昭堂獨立文集』, 臺北: 臺灣文史叢書, 1998, 17 쪽.

62) 『政府大陸政策重要檔』, 「陳總統就職演說」, 大陸委員會, 2000년 5월 20일, 頁 91.

독립설이 있다. 당연독립설은 카이로선은 무효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유엔헌장에 대한 주관적 해석으로 결정한다. 평민민(彭敏敏)등의 상태독립설(狀態獨立說)은 1949년 분열분치가 시작되면서 이미 독립상태라고 주장한다. 천룽즈(陳隆志)의 진화독립설(演進獨立說)은 계엄후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민주화의 과정은 유효자결(有效自決)의 과정으로 보고 대만은 이미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이 논술은 민진당의 주류논술이었다. 그러므로 양장시대(1949-1988, 장제스, 장징궈)는 외래정권이 비법(非法)적으로 통치한 시기가 된다.

둘째, 아직미독립(尚未獨立)설이다. 이는 주권재미설, 주권중국설, 주권대만설등이 있다. 린즈승(林志升), 허레이위옌(何瑞元)의 주권재미설(主權在美說)은 2차대전 종결시에 미국은 대만의 주요점령국가로서 중국정부는 단지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중국전구사령관인 장제스가 맥아더의 명령을 위탁하여 천이(陳毅)를 대만행정장관 겸 대만사령으로 임명하여 대만을 점령했을 뿐이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점령은 주권을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비록 중국대륙으로부터 탈피하는 작용은 있을지라도 미국은 이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황위정(黃巨正), 푸원친(傅雲欽)의 주권중국설을 펼친다. 1949-1970년 기간, 양안정부는 명백히 통일의 의지와 소망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차이가 있다면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가의 문제였다. 그 후 영국, 미국 모두 대만지위미정론을 포기하고 중국대륙과 수교했다. 베이징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할 때에도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는 정식으로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애매모호한 태도의 언론을 발표했다. 그런 결과로 중국의 내정으로 떨어져 타국의 개입은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인식한다.

주권대만인민설(主權屬於臺灣人民說)은 대부분의 독립파 단체나 정객들이 주장하는 논리다. 대만의 주권은 대만인민에게 속하나 국제적 지위가 미정이기 때문에 국제적 승인의 획득을 필요로 한다. 국제승인의 유효한 방법은 제헌과 정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진당 시기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즉, 법률적인 타이두 노선이다.

양안쟁의의 근원은 주권에 있다. '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주권독립은 화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두 대립물이다. 무엇보다도 중공은 일중원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당을 포함하여 대만정부는 일국양제의 통일방법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민진당 역시 주권독립, 본토의식체고를 변화시킬 뜻이 없다. 그렇다고 독립을 선포할 수도 없다. 이는 중공의 무력동원의 마지막노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sup>64)</sup> 현재 양안간은 그 어느 일방이 현재의 불통, 불독, 불전, 불화(不統, 不獨, 不戰, 不和)의 양안현상을 평화적 혹은 비평화적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거나 대만공화국을 건설할 능력을 양방 모두 결핍하고 있다.

63)陳儀深, 「臺灣地位論述總整理」, 『自由時報』, 2007년 8월 7일.  
64)Harry Harding, “Think Again: China”, *Foreign Policy*, Vol. 25, No. 2 (March/April 2007), pp. 26~32.

### 민진당 타이두정책의 전변(轉變)

민진당 타이두 정책의 변화			
정책	시기	배경	문건 및 그 내용
대만 독립	2007~	요우시쿤(游錫堃), 총통후보경선시에 정상국가결의문(正當國家決議文)을 대만전도결의문을 대체한다. 후에 2007년 9월 경에 결승되어, 천쉐이벤(陳水扁)의 결의문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진당대회: 정상국가결의문  주민자결, 헌법제정, 국제조직 참여, 대만정체 의식으로 일중원칙을 타파, 대만정명, 타이두강령과 대만전도결의문의 기초위에서 정상국가결의 제출, 대만정명, 제헌, 유엔가입등으로 대만을 정상국가로 만들자는 것
		민진당 총선 실패, 미국압력, 연성 타이두로 위장	1999 당대회: 대만전도결의문  주민자결, 대만정체성 고취, 일중원칙 탈피, 대만은 주권독립국 헌법에 의거해 중화민국이라 칭하지만 중국대륙과는 관계 없다. 주권 영역 역시 타이핑진마에 한정된다. 대만독립현상의 변동은 반드시 대만인민들의 동의를 요한다. .
중화민국의 위	1995~2007	대통령후보 타이두인상을 위해 타이두 당강을 회합 하 였 으 나 린취쉐이(林濁水)의 상호 '대만전도결의문' 발표	1995년 당내 타이두 당강 수정문제 발생  당시 민진당 주석 스밍더(施明德), 대만은 주권독립국으로 민진당이 집정하더라도 대만독립을 선포할 필요가 없다.
		민진당은 인민제헌회의를 차용하여 대만공화국헌법초안을 제출하고 주권독립자주의 대만공화국기본강령안을 통과시	1991년 민진당 5전회의(五全會議): 타이두 강령  주민자결, 신헌법제정, 대만정체성,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주자립의 대만공화국 및 헌헌법제정을 주장, 대만전체인민이 국민투표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주권대만	1987~1991	민진당내 타이두 논조 대두, 소련해체, 동구권붕괴 및 국제정세 격변에 자극받음.	1988년 2대 임시회의: 417 결의문  대만국제주권독립국으로 베이징을 수도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지 않는다. 대만국제지위의 변경은 대만전체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화통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1990년 4전회의(四全會議): 1007 결의문  대만의 사실상의 주권은 중국대륙 및 외몽고에 미치지 않는다.
			1986년 민진당 당강  대만의 전도는 대만전체주민이 자유민주, 보편, 공평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공동결정해야 하며, 어떠한 정부 혹은 정부의 연합도 대만의 정치거국을 결정할 수 없다.
주민자결	1986~1987	민진당 창당 초기에 격진적인 타이두의 공간이 없었고 격진적 타이두 주장은 없고 모호한 '자결'을 주장	

(陳議深, 「臺灣地位論述總整理」, 『自由時報』, 2007년 8월 7일자, 필자 재보충 정리)

### 3. 양안간의 쟁점: 대만의 정체성

냉전시기 중미관계는 소련견제에 상호간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대만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 천안문 사태, 중공의 전략적 지위의 약화, 국제사회의 중공에 대한 고립정책과 대만에 대한 동정론으로 인해, 대만문제는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또 대만내부에서는 민주화와 본토화, 타이두화의 길을 걸으면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양안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현재 점점 더 두드러졌으며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체성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났다. 2014년에 있었던 '태양화 운동'이 그 단적인 예다.

국가정체성은 특정구역내의 특성의 군체들이 특정한 역사의 기간 중 공동운명의 기초위에서 형성된 고도의 일체성이다. 국족(國族)은 광의의 개념의 공통적인 혈연, 언어,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족은 민족과 같은 개념이나 국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국가정체성이다. 민족은 근대 일본에서 들어온 개념으로서 경제, 언어, 문화 등에서 공통적인 민족들이 실질적인 정치통일과 지역일체화 후에 형성된 이익단위이다. 스탈린이 정의하듯이, 민족은 인간의 역사에서 형성된 공통된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상의 공통적인 심리를 깔고 있는 공동체다. 그러나 정치통일과 지역통일체의 과정에서 약소한 인민의 나라는 경계가 나뉘지는가하면 여러 나라에 걸쳐서 민족과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바로 국족과 민족의 구별은 여기에 있으며, 전자는 반드시 국가를 필요로 한 반면 민족은 자치권이나 국가형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65)</sup> 이는 종족이 민족정체성에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종족정체성이 구축한 민족정체성은 국가정체성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정체성과 종족문제가 통일될 필요성은 없지만 대만에서는 이 두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그 이유는 대만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sup>66)</sup> 대만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4백년에 불과하다.<sup>67)</sup> 아래의 도표는 양안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비교적 대만인의 입장에서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공리주의적 입장은 양안 간을 통일과 독립에 구애받지 않고 실용주의적 입장에 근거해서 비용과 편익으로 계산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65)이원봉,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양안관계」, 『아태연구』, 제16권 제2호, p154.

66)張茂柱, 「談身份認同政治的幾個問題」, 遊盈隆編, 『民主鞏固或崩潰: 台灣二十世紀的挑戰』, 臺北: 月旦出版社, 1998, 101쪽.

67) 물론 삼국시대 오(吳)나라 손권(孫權)이 이주(夷州)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이 때의 이주가 대만을 가리키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1602년, 명(明)시기 일본왜구가 대만을 점령하자, 명장 심유용(沈有容)은 왜국 격퇴를 위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며, 그때 그의 시종으로 간 진제(陳第)가 대만에서 있었던 20여일 간을 기록한 것이 동번기(東番記 1603년)다. 동번기에 당시의 대만 서남부 원주민 핑푸족의 생활상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그 이후 대만은 네덜란드 스페인의 38년, 명 정성공 부자의 21년, 청나라 통치기간 212년, 일제통치기 51년, 국민당 장제스, 장징궈 부자 통치 40년, 리登웨이 천세이벤 20년, 마잉주 집권 등 400년 남짓에 불과하다.

-양안차이성 비교표<sup>68)</sup>

관계전제	양안정위	민족	역사서술	문화	언어	정치	경제, 사회
하나의 민족	대륙 대만	중국인	5천년사	중국 문화	중문, 국어	공산당정치 / 다당 민족	대륙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발전 유지
두 개의 민족	중국	중국인	5천년사	일 원적, 보수적	베 이 정 어	공산당정치	국강민빈 (國強民貧)
	대만	대만인	4백년사	다원, 현대	국 어, 대만어	민주자유	부유하고 진보한 사회
공리주의 (功利主義)	중국 / 대륙, 대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신흥시장

2013년 대만정치대학 선거센터 여론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자신을 대만인이자 중국인이 아니다가 57.5%,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3.6%로, 자신을 중국인 이면서 대만인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은 36.1%로 나타났다.<sup>69)</sup> 비록 마잉주(馬英九)집권과 더불어 양안 간 교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만인이다"라는 비율은 민진당 시기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안간의 경제교류가 양안간의 정체성 확대와는 별 관계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대만(Taiwan)”을 국호로 대신하고 있다. 특히 대만민주화 이전에는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인식하는 대만인들은, 중국대륙에서 온 중화민국정권에 대해서는 외래정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대만의 헌법 헌법에 의거하면 현재의 국명은 “중화민국”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국가 이름을 “중화민국”으로 칭하지 않으며 자기를 역시 “중국인”으로 말하지 않는가. 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개념으로 인식되는가, 현재 대만의 가장 큰 혼란중의 하나는 바로 “중화민국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귀결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천록진영에서는 대만이 있어야 비로소 중화민국이 있다고 말한다. 대만이 어디까지나 주체가 된다.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섬은 ①원래 거주했던 남도계통 (Austronesia)의 원주민과 ②주로 명말청초에 이민 온 민난인(閩南人)과 ③객가인 (客家人) ④국공내전으로 인해서 대만에 온外省인(外省人)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만의 정체성의 혼란과 혼동 그리고 복잡성은 결국 양안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특히 중화민국의 존재와 대만으로의 철수로 인하여 조성된

68)包諱亮, 「兩岸政治矛盾與未來」, 王央城主編, 『前膽兩岸關係發展的趨勢』, 台北: 國防大學戰略研究所出版, 2007, 38쪽을 필자가 재정리.

69)『중국평론』, 제191기, 2013년 11월호, 10쪽.

역사적 해석과 지위는 대만의 정체성 혼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대만 내부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대(對)중국대륙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주장과 의견이 대립되어 있어 정치적으로 보거나 진보, 또는 경제우선주의 또는 정치우선주의와 같은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합치점을 찾기가 어렵다. 둘째, 각 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로 비슷하여 양안문제의 해결이 더 어렵게 되었다. 셋째, 따라서 대만의 양안정책은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으며 그런 결과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목적과 입장에 따라 대만내부의 정치는 크게 요동치고 온탕과 냉탕을 오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의 수립과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정부 역시 대(對)대만정책은 일관되게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화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강온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면서도 대상의 선택과 대화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야하는 파행을 가져오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양안은 항상 교류의 채널은 열어놓고 있었다. 특히 양강시대와 리덩훙이 시대에도 비밀특사가 오고 갔으며, 민진당 집권기에도 소삼통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마잉주 집권기 대삼통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 IV. 양안간 대화채널, 연구기관, 학자

##### 1. 양안간 채널

마잉주 정부 초기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쑤치(苏起)는 대만연합보《联合报》와의 인터뷰에서 양안간에는 이미 20개의 소통 채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간 사무성 연계 기제외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소통 채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과 미국, 대만과 일본 간에도 60여개의 소통채널이 있음을 밝혔다.<sup>70)</sup> 또 관방적인 소통채널 이외에 다양한 민간 채널을 통해서 양안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한다.

##### (1) 양안양회회담

양안 양회회담은 대만의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 간칭 해기회)와 중국 대륙의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간칭 해협회) 간의 회담을 말한다.

2008년 5월 20일 국민당 마잉주 집권부터 양안양회 협상을 회복하여 2008년 6월 13일부터 2014년 2월 26일까지 양안 양회가 10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양안경제기본협정(ECFA)을 비롯해 21개의 협정을 체결, 2개의 공식(陸資來台投資事宜達成共識, 人身自由與安全保障共識)을 달성하였고. 그 중 해협양안서비스협정, 해협양안지진감축협력협정, 기상협정등은 태양화운동과 대만지방선거로 인하여 아직까지 국회에서 보류 중이다.<sup>71)</sup> 21개의 협의에 서명했으나, 모두 경제, 무역, 범죄인도, 원자력안전 등 실제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에 관계된 것이지, 정치적 협상 체결은 아직까지 없다.

##### (2) 대만행정원대륙위원회와 중국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수장 회담

2014년 2월11일, 양안의 정부 주무사무 기관장이 중국대륙 난징(南京)에서 65년만에 만났다.<sup>72)</sup> 대륙위원회 왕위치(王郁琦) 주임위원과 중국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즈쥔(張志軍)

주임의 정식회담이었다.무엇보다도 기존의 회담이 대만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해기회(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대륙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위임을 받은 해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의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의 수장이 회담을 진행했던 반면 이 회담은 정부 주무관청의 행정수장이 직접적으로 회담에 임했다는 점이다. 2014년 말 장즈쥔 주임의 진먼(金門)에서의 회담은 대만선거에서의 민진당 압승, 대만행정원대륙위원회 부주임인 장셴야오(張顯耀) 비밀누설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자, 왕위치는 사임을 표시했고 이로 인해 양안 관방 최고 실무자회담은 연기상태에 있다.

##### (3) 양안경우문화론단(兩岸经贸文化论坛, 일명 국공론단)

2005년 국민당 주석 쑨롄(連戰)의 중국대륙방문(和平之旅)이 계기가 되어 양안간 포럼이 만들어졌다. 쑨롄의 방문은 국공내전 이래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간 최초의 최고위층 회담이었고, 1949년 이래 대륙을 방문한 국민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이 방문은 92공식과 타이두반대를 전제조건으로 성사된 것이며, 해협양안경제, 무역,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교류와 대화를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0회를 맞이한다.

(4)해협론단(海峽论坛)은 마잉주 집권과 더불어 대삼통이 열려 푸젠성을 위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화활동, 기층교류, 문화교류, 경제무역교류 등 네 분야로 나뉘어 교류한다. 해협론단은 "양안일가친(兩岸一家亲)의 이념으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양안협력을 강화하며, 양안공동발전 추진한다.<sup>73)</sup>

(5)양안기업가협회(兩岸企業家峰會)는 2008년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대륙과 대만이 각각 이사회를 설립하여 기업가들의 교류 중국 국무원부총리 쑹옌페이(曾培炎), 사오완창(蕭萬長) 전 대만부총통이 공동 이사장을 맡고 있다.<sup>74)</sup>

(7)보아오포럼(鰲亞洲论坛, Boao Forum For Asia)은 비정부, 비영리며, 정기적으로 하이난다오(海南省)의 보아오에서 열리는 포럼으로 양안은 정기적으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8)APEC가 열리는 기간내에 양안간은 정기적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9)지방간 양안간 교류채널은 제20회 루타이회(第二十屆魯台會), 제9회 타이상론단(第九屆台商论坛), 제7회 진타이투자상담회(第七屆津台投資洽談)등 일일이 헤아릴수 없이 많다.<sup>75)</sup>

또한 대만과 별도로 중공은 해협양안교류기지(海峽兩岸交流基地)를 건립하여 대륙민중들의 대만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있다. 양안간의 문화전승차원에서 해협양안교류기지를 만들어 양안 민중이 공통된 역사를 회고하고, 혈육간의 정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미 있던 28곳의 해협양안교류기지에 또 9개의 해협양안교류기지를 증설하였다.<sup>76)</sup>

#### 2. 중국대륙의 양안관계 연구기관

중공에게 있어서 대만과의 통일은 덩샤오핑이 중공 12대에서 밝힌 삼대임무중의 하나다. 그만큼 중대한 임무여서 중공의 대(對)대만 공작의 연구기관 및 연구체계는 방대하며 조밀하고 계통적이다.

##### (1) 전국대만연구회(全國臺灣研究會)

전국적 조직으로 전국대만연구회를 들 수 있다.1988년 8월 16일 설립된 이 단체는 양안관

70) <http://taiwan.huanqiu.com/news/2010-05/817010.html>

71) 중화민국행정원대륙위원회, <http://www.mac.gov.tw/ct.asp?xItem=67145&CtNode=5710&mp=1>.

72) 대만행정원대륙위원회 성명, <http://www.mac.gov.tw/public/Attachment/42150243337.pdf>

73) [http://www.taiwan.cn/hxlt/gylt/201406/t20140606\\_6276731.htm](http://www.taiwan.cn/hxlt/gylt/201406/t20140606_6276731.htm)

74) 兩岸企業家峰會, <http://www.laqyjh.com/>

75) <http://special.taiwan.cn/communicate/>

76) <http://tw.people.com.cn/n/2014/0910/c14657-25633315.html>

계를 연구하는 학자, 대만과의 관련이 있는 단체회원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민간학술단체다. 양안 및 해내외에 대만문제와 양안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교류무대고, 다양한 분야의 학술활동을 펼치며, 학자들간의 교류, 우의 및 협력을 도모하여 양안관계의 평화발전과 통일을 촉진한다. 전국대만연구회가 설립된 이후로 여러 형식으로 양안관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양안의 전문가들을 대대적으로 초청해 이미 수백종의 대만연구서와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중국대륙에서 대만과 양안관계 문제를 연구하는 전국적인 사단(社團)으로 해협양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국대만연구회는 40개 이상의 단체회원, 1000명 이상의 개인회원, 상무이사는 40명 이상이며 이사는 180명이다.<sup>77)</sup>

전국대만연구회는 연락부, 연구부, 종합부 등 세 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연락부는 국내외 학자초청, 학술교류활동 등 대외학술교류의 연락에 관한 일을 처리하며, 이사회와 단체회원 회의등을 개최한다. 연구부는 대만중국 및 양안관계의 형세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 각 부서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며, 학술저작출판 자금 보조를 심사하여 결정하며 대만연구 및 기타 학술연구성과를 편집출판하며 대만연구성과에 관계된 학술수상자를 선정한다. 종합부는 회원과 단체회원간의 연계, 본회의 행정과 후근보장(後勤保障)에 관계된 일을 맡는다. 출판방면에, 전국대만연구회는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합동으로 『대만연구(臺灣研究)』 격월간을 출판하는 것 외에도 매년 양안관계와 대만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분석과 연구서인 『대만매년도형세회고와전망(臺灣各年度形勢回顧與展望)』 계열의 총서를 발행하며, 아울러 양안관계와 관계된 중요한 문헌, 정책규정통계자료에 대한 편집을 주관한다.

## (2) 지방대만연구회(地方臺灣研究會)

중공은 전국대만연구회를 설립한 것 외에 지속적으로 연해(沿海)도시에 지방 대만연구회를 조직했다. 지방성 대만연구회는 여러 형태가 있다.

### 1) 성급대만연구회(省級臺灣研究會)

#### 가) 푸젠성대만연구회(福建省臺灣研究會)

푸젠성은 대만과의 역사적 연유로 인해서 양안관계를 연구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중국대륙전체에서 푸젠성은 대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 린치탄(林其談) 교수가 말한 오연(五緣)을 지니고 있다. 즉, 친연, 지연, 신연(神緣), 업연(業緣), 물연(物緣)을 맺고 있다. 중공 역시 푸젠성과 대만성의 독특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강조한다. 푸젠성의 대만 연구는 역사, 문화로부터 예술, 교육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샤먼대학(厦門大學) 대만연구원(台灣研究院) 외에도, 푸젠사회과학원, 푸젠사범대학, 화차오대학(華僑大學), 지메이대학(集美大學), 민대연박물관(閩台緣博物館), 정성공박물관(鄭成功博物館), 샤먼시 대만예술연구소, 푸톈대학(莆田學院) 등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대만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sup>78)</sup>

77) 全國臺灣研究會, <http://tyh.chinataiwan.org/>

78) 『福建東南新聞網』, 2008년 12월 4일, [http://big5.fjsen.com/misc/2008-12/04/content\\_616137.htm](http://big5.fjsen.com/misc/2008-12/04/content_616137.htm)

#### 나) 하이난성대만연구회(海南省臺灣研究會)

1990년 1월 10일 설립되었고, 난하이, 대만간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하이난성과 대만인의 고인류는 같은 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광둥성대만연구회(廣東省臺灣研究會)

1991년 7월 4일 설립되어 다양한 형식의 학술활동을 통해 광둥성과 대만간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 라) 장쑤성해협양안관계연구회(江蘇省海峽兩岸關係研究會, 해연회)

이 단체는 1992년 장쑤성 정협(政協)에 소속된 민간단체로, 20여년간 1만 여명 이상의 대만인사들을 초청하였고, 각종 전문강좌와 학술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대만학계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교류기제를 만들었다. 해연회는 장쑤성과 대만의 경제, 과학기술, 문화사업 등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sup>79)</sup>

#### 마) 저장성대만연구회(浙江省臺灣研究會)

1992년 12월 18일 전국대만연구회 항조우(杭州)의 일부분 이사들이 발기하여 설립한 법인 민간학술단체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장성 정협의 지도를 받고 있다.

#### 바) 텐진시대만연구회(天津市臺灣研究會)

1995년 10월 9일 텐진시 사회과학계연합회와 전국대만연구회단체회원들이 텐진시 사단관리국(社團管理局)이 비준한 시급학술성 군중단체법인이다. 이 학회는 대만문제 전문가, 연구원, 대만관련 공작 간부, 통일인사들이 모여 있으며, 학회의宗旨은 "화평통일 일국양제"를 기본방침이며, 경제문화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텐진시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한 임무는 연구과제 제출, 대만문제 연구, 학술토론회, 활동, 학술간행물 출판 편집, 연구정보 소통, 텐진과 대만의 인원교류등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sup>80)</sup>

### 3) 시급대만연구회(市級臺灣研究會)

다롄시대만연구회(大連市臺灣研究會), 선양시대만연구회(瀋陽市臺灣研究會), 우한해협양안관계연구회(武漢海峽兩岸關係研究會) 등이 있다.

### 4) 특수한 대만연구회(專業型臺灣研究會)

대만영화연구회(臺灣電影研究會), 중국법학회해협양안법률문제연구회(中國法學會海峽兩岸法律問題研究會), 장시성항오대경제연구회(江西省港澳臺經濟研究會), 베이징대만연구경제중심(北京臺灣經濟研究中心), 대만소수민족연구회(臺灣少數民族研究會) 등이 있다.

### 5) 종합대학대만연구회: 베이징대학 대만연구회(北京大學台灣研究會)

베이징 대학대만연구회는 2002년 3월 설립되었다. 대만정세에 관심을 촉발시키고, 양안관계 연구, 양안청년학생교류촉진을 중지로 설립되어, 베이징대학항오대(港澳臺)판공실, 베이징대국제관계학원, 베이징대대만연구중심, 중화전국대만동포연의회, 전국대만연구회등 교내외단위의 대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79) 『新華日報』, 2007년 9월 6일.

80) 天津市臺灣研究會, <http://www.tjtyh.com/docc/haixialuantan.htm>

『양안청년(兩岸靑年)』은 베이징대학 향오대판공실,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과 베이징 대학 대만연구중심의 지도하에 베이징대학 대만연구회가 발간하는 계간지다. 대연동태『台研动态』는 인터넷 간행물로 매월 발행한다.<sup>81)</sup>

## 2. 중국대륙의 양안관계 학술연구소

(1) 중국사회과학원대만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臺灣研究所)

중국사회과학원은 국무원의 직속사업기구로 1975년 5월 설립했다. 그 전신은 중국최고학술기구중국과학원의 철학사회과학부로서 중공중앙서기처가 1984년 9월 비준하여 설립했다.<sup>82)</sup> 전면적으로 대만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 및 양안문제를 연구하는 종합성학술기구다.

중국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는 대만역사, 대만문화, 교육, 양안관계 및 대(對) 대만방침 정책 등에 선명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대만연구소는 첫째 중국사회과학원의 통일규획부서에 맞춰 대만에 대한 과학연구와 기초과제연구를 진행하고, 둘째 중앙이 위탁한 연구진행 및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셋째, 양안학술교류, 학술토론회 개최, 국내외의 전문가 초청 및 대만을 포함하여 외국으로 전문가 파견, 지역연구, 고찰, 방문 등의 학술활동, 넷째, 대만 도서에 관련된 자료, 인터넷자료 및 대만에 관한 학술자료 파일 정리, 다섯째, 통일연구인력 및 전문가를 배양한다.

현재 중국사과원대만연구소 소장은 조우쓰화이(周志怀), 부소장은 주웨이동(朱卫东) 장관화(张冠华), 씨에위(谢郁)등이며, 연구원과 보조인원 및 행정인원은 60인을 넘으며, 그 중 부고급(副高級)연구인원은 25인이다.<sup>83)</sup> 대부분 중국전역에서 대만과 관계된 정부부서, 정부연구기구, 중점대학의 객좌교수, 연구생 지도교수, 특약연구원 등 이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

대만연구소내에 대만정치연구실, 대만경제연구실, 대만대외관계연구실, 종합연구실, 대만인물연구실 등 5개의 연구기구와 과연실(科研究室), 자료실, 판공실, 인사처 등이 있고, 30년 동안 연구체계를 완비하여 중국대륙내 규모가 가장 크고 국내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구비한 학술기구다.

대만연구소는『대만연구(台灣研究)』쌍월간과『대만주간(台灣周刊)』을 발행하고 있다.『대만연구』는 중국사과원대만연구소가 주관하는 종합성 학술간행물로 '객관적 대만인식과 조국화평통일'을 중지로 운영되며 대만과 관계된 대만정치, 법률, 역사, 종교, 사회교육, 문화예술 및 양안관계, 통일문제와 관계된 학술논문을 실고, 아울러 대만인물 소개, 서평 및 중요연구자료를 소개한다.

『대만주간(台灣周刊)』은 1993년에 창간하여, 대만정황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종합적인 신문주간이다. 대만지구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 사회, 인문풍물등의 정황, 돌발정책성, 시효성, 종합성을 갖춘 대만관련 주간이다. 당, 정, 군, 학계, 기업 등 대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구독하는 잡지다.

중국사과원대만연구소는 설립된 이래 중공중앙이 위탁한 대량의 중요한 연구과제를 완성했고, 아울러 참고가치가 큰 종합분석보고를 제공했다. 특히『대만문제와 중국의 통일 백

서(臺灣問題與中國統一)』,『하나의 중국원칙과 대만문제 백서(一個中國的原則與臺灣問題)』및 대만에 관련된 중요한 파일 및 중공지도자들의 연설등을 기초하였다. 대만연구소가 편집출판한『대만총람(臺灣總覽)』,『대만경제총람(臺灣經濟總覽)』,『당대대만인물대사전(當代臺灣人物大辭典)』,『해협양안경제투자대전(海峽兩岸經濟投資大全)』,『대만기구사단기업대전(臺灣機構、社團、企業大全)』,『중국국민당전서(中國國民黨全書)』,『답대만동포서(答臺灣同胞問)』,『대만지식문답(臺灣知識問答)』등 도구적 서적과 대만문제 지식물들을 편찬해 대만연구와 대만에 관련된 선전교육에 개척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일련의 학술저작을 완성했는데,『해협양안관계개론(海峽兩岸關係概論)』,『일국양제와대만전도(一國兩制與臺灣前途)』,『대만문제의 유래와발전(臺灣問題的由來與發展)』,『전형기의대만(轉型期的臺灣)』,『양안경무관계탐토(兩岸經貿關係探討)』,『대만문제실록(臺灣問題實錄)』,『민진당집정상황연구(民進黨執政狀況研究)』,『민진당정상관계연구(民進黨政商關係研究)』,『민진당대륙정책연구(民進黨大陸政策研究)』등을 완성했다. 아울러 간부독본, 대학생독본의『중국대만문제(中國臺灣問題)』와 중앙당교재인『대만문제독본(臺灣問題讀本)』,『중국대만문제외사인원독본(中國臺灣問題外事人員讀本)』등 대만에 관련된 교재를 편찬했으며 광범한 영향을 끼쳤다.<sup>84)</sup>

(2) 중국사과원대만사연구중심(中國社科院臺灣史研究中心)

2002년 9월 28일, 사과원대만사연구중심이 설립된 이래, 타이두 세력의 반대논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만사를 중국역사의 한 가지로 만들어 버렸으며, 대만사 연구를 통해서 당중앙, 국무원대(對)대만공작부분과 관계된 대만역사문제에 관한 쟁크탱크의 기능을 담당하고,『대만통사(臺灣通史)』를 완성했다.<sup>85)</sup>

(3) 텐진사과원대만연구소(天津社科院臺灣研究所)

1988년 12월 설립되어 대(對)대만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방면의 연구를 통해 양안통일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연구소다.

## 3. 대학부설 대만연구소 및 기타(大學臺灣研究院以及其他)

(1) 샤먼대학대만연구원(廈門大學臺灣研究院)

샤먼대학 대만연구원의 전신은 샤먼대학 대만연구소로 1980년 7월 9일 발족했다. 중국대륙에서 가장 먼저 발족한 대만연구 학술기구로 교육부와 푸젠성이 공동으로 만든 기구며, 그 아래에는 정치연구소, 경제연구소, 역사연구소, 문학연구소, 양안관계연구소 등 5개 연구소와 원판공실, 문헌정보센터가 있고『대만연구집간(臺灣研究集刊)』편집위원회가 있다.<sup>86)</sup> 현재 샤먼대학 대만연구원은 대만정치, 대만경제, 대만역사, 대만문화, 대만법률, 대만교육, 대만군사 등 종합연구 단체로, 대만연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며 해외에서도 가장 유명하다. 뿐만아니라 대만과 관련된 고급인재들을 배양하는 가장 큰 기구다. 샤먼대학 대만연구원은 대만연구와 관계된 유일한 "211 공정" 중점 건설학과며, 중국교육부의 중점연구 기지로서, "985 공정"의 핵심연구기지이다.<sup>87)</sup>

81) <http://w3.pku.edu.cn/life/xuehui/pkutra/online.htm>

82) 中國社科院, <http://www.cass.net.cn/>

83) 中國社科院臺灣研究所, [http://www.cass.net.cn/y\\_03/y\\_03\\_50twyjs.html](http://www.cass.net.cn/y_03/y_03_50twyjs.html)

84) 中國社科院臺灣研究所, [http://www.cass.net.cn/y\\_03/y\\_03\\_50twyjs.html](http://www.cass.net.cn/y_03/y_03_50twyjs.html)

85) 『新華網』, 2002年9月28日,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09/28/content\\_579027.htm](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09/28/content_579027.htm)

86) <http://twri.xmu.edu.cn/>

샤먼대학 대만연구소는 샤먼대학대만연구원으로 개명하여 43명으로 편제되었으며 그 중 교수는 9인 부교수는 10인이다. 현재 원장은 류귀선(劉國深)교수로, 등리쥬엔(鄧利娟), 리펑(李鵬), 펑리(彭莉)교수가 부원장을 맡고 있고 대만연구에 전국 1위를 점하고 있다.

#### (2) 베이징연합대학대만연구원(北京聯合大學臺灣研究院)

베이징 연합대학대만연구원의 전신은 1989년 5월 설립된 베이징연합대학 문법학원(이후, 응용문리학원)의 대만연구실이며 2000년 12월 12월 설립된 대만연구소다. 2005년 4월 양안 관계가 새로운 형세 발전의 수요에 의해 국대판과 베이징시대판, 시교위(市教委)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교당위(校黨委)가 대만연구소를 폐하고 원(院)으로 편제하여 샤먼대학 대만연구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만연구원이 되었다.

2000년 12월, 연구원 설립 보고대회에는 중국교련(中國僑聯) 부주석 린리원(林麗韞), 국대판 부주임 왕짜이시(王在希), 전국정협당위, 해협양안관계연구중심 주임 탕수썰이(唐樹備), 전국대련 회장 쑤민성(蘇民生), 베이징시정협,시대판(市台办), 시교공위(市教工委)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양안관계에 권위있는 인물인 전국정협 부주석 완국취엔(萬國權), 중국교련 부주석 린리원이 축하치사와, 해협회 왕다오한(汪道涵) 회장이 현판글자를 썼으며, 탕수썰이와 베이징시대판 주임 덩페이더(鄧培德)가 현판식을 하여, 베이징 지역의 대만연구 중점인 베이징 연합대학 대만연구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대판에 자문을 주는 단위로 매우 권위있는 기관이다.<sup>88)</sup> 초창기에는 국대판의 부주임인 탕수썰이가 명예원장으로 쉬보둥(徐博東)교수가 원장을 맡았다.

#### (3) 칭화대학대만연구소(清華大學臺灣研究所)

2000년 10월 25일 설립되었고, 대만경제, 양안경제관계 및 양안산업교류와 협력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속으로는 양안경제관계연구실, 양안산업협작발전연구중심, 종합연구실이 있고, 2001년 4월 29일 자료제공망인 『해협양안경제망(海峽兩岸經濟網)』을 운영하고 있다.<sup>89)</sup>

#### (4) 저장대학대만연구소(浙江大學臺灣研究所)

중국대륙에서 많은 대만연구소가 있지만 중국국가교위(교육부)가 비준한 것은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샤먼대학대만연구원 외에 저장대학 대만연구소가 있다. 기타 연구소는 모두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 (5) 난카이대학대만연구소(南開大學臺灣研究所)

1987년 1월에 설립된 난카이대학 대만연구소는 난카이대학 경제학원에 부속으로, 대만과 관련된 경제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나, 역사 및 정치학을 겸하고 있다.

#### (7) 기타 연구소

87) '211 공정'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적 수준의 100개 일류대학과 중점 학문분야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985 공정은 세계 일류대학 건설 프로그램(世界一流大學建設項目)'인 이 프로젝트에 '985 공정'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1998년 5월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88) 『人民網』. <http://tw.people.com.cn/GB/14865/14925/859945.html>

89) [www.hellotaiwan.org.cn/index.asp](http://www.hellotaiwan.org.cn/index.asp)

푸단대학 대항문화연구소(台港文化研究所), 인민대학대항오연구중심(人民大學台港澳研究中心), 시장재경대학대만경제연구소(西江財經大學臺灣經濟研究所), 텐진대학대만연구소, 화차오대학대만경제연구중심(華僑大學臺灣經濟研究中心), 산토우대학대항오연구소(汕頭大學台港澳研究所) 등이 있다.

#### 4. 상하이 대만연구소 및 기타

중공의 많은 정치가들이 상하이에 그 거점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하이 학계와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 특히 오랜동안 해협회 회장을 맡았던 왕다오한(汪道涵)은 중공 대(對) 대만정책결정에서 시종일관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중공의 고위층과 상당히 밀접하다.

##### (1) 상하이대만연구소(上海臺灣研究所)

상하이 대만연구소는 중국대륙의 대(對) 대만 정책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싱크탱크 중의 하나다. 1999년 4월 당시 해협회 회장 왕다오한의 창의로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비준하여 결성되었다. 왕다오한은 고문을 맡았고, 차오지엔밍(曹建明)이 초대 소장을 역임했다.<sup>90)</sup>

##### (2)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上海國際問題研究所)

1960년에 설립되어 현시점에 직면한 국제사무문제를 연구하고 국제정세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아태, 유럽, 미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있다. 대만, 홍콩, 마카오 내부의 정치경제발전에 연구를 진행하여, 양안 4지(홍콩, 대만, 마카오)의 정치경제 상호작용과 이론문제를 연구하며, 일국양제의 신탁징을 탐구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와의 관계된 정책을 연구한다.<sup>91)</sup>

##### (3) 상하이동아연구소(上海東亞研究所)

상하이 동아연구소는 1995년 11월 설립되어 동아시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학술기구며, 대만, 홍콩, 마카오 문제에 중점을 맞춰 중국대륙, 일본, 미국관계까지 확대하여 연구한다. 연구의 성과들은 주로 사회주의현대화건설과 독립자주의 평화외교정책에 관한 것이며, 간행물로는 『동아동태(東亞動態)』, 내부간행물로 『동아전보(東亞專報)』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중국평론(中國評論)』과 협력하고, 동시에 『동아총서(東亞叢書)』발행을 협찬한다.<sup>92)</sup>

#### 5.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및 기타(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以及其他)

##### (1)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은 종합적인 국제문제연구기구로, 그 전신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다. 중공중앙은 1980년에 국제문제 연구기구를 설립했으며, 2003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으로 개명하였다. 연구영역은, 국제전략구조, 세계정치문제, 세계경제발전추세, 지역안전문제, 각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 지역협력 문제를 다룬다. 연구보고 등의 형식으로 정부관련부처에 제공하고 특히 기타부서의 위탁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외 관련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협력연구를 진행한다.<sup>93)</sup> 2002년 8월에 대만관련사무연구중심(涉台事務研究中心)

90) <http://sh.taiwandao.org/twyjs/>

91) [http://www.ssiis.org.cn/Lingyu\\_View.aspx?lid](http://www.ssiis.org.cn/Lingyu_View.aspx?lid)

92) <http://www.sssa.org.cn/shdy1.htm>



을 설립하고, 대만과 관계된 주요국가들과 주요지역에 대한 대(對)대만정책 연구와 학술교류를 해오고 있다.<sup>94)</sup>

#### (2) 중국국제전략학회(中國國際戰略學會)

1979년 설립되어 국제전략문제를 연구하는 민간학술단체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 소속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총참정보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 과거 국대판 부주임인 왕짜이시(王在希)는 총참정보부 재직시에 중국국제전략학회연구원 신분 명의로서 해협 회 이사직을 맡았다. 홍콩 『문화보(文匯報)』, 『대공보(大公報)』 및 인민일보 해외판에 양안관계와 관련된 평론을 주로 게재한다.

#### (3) 평화발전연구중심(和平與發展研究中心)

1984년 설립되었고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산하에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총참모부에 소속된 기구다. 국제전략 및 종교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대만, 홍콩, 마카오 조(組)는 동태성 정책결정연구 fmf 주로 하며, 중국의 대(對) 대만 정책에 일정한 영향력을 구비하고 있다.

#### (4) 군사과학원 대만해협 문제연구중심(軍事科學院台灣問題研究中心)

홍콩 『대공보』의 2004년 4월 13일 보도에 의하면,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은 기구편제 조정을 진행하여 대만해협문제연구중심(台灣問題研究中心), 군사사상연구소, 군사역사연구소 등의 기구를 설립했다. 그 중 대만문제연구중심은 원래 군사과학원 세계군사연구부의 제 5 연구실이었으나 대만문제연구중심으로 개명하였다. 이 센터는 확실하게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양안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펑광리엔(彭光謙)소장, 뤼위엔(羅援) 등이 있으나 대만문제연구중심에 그 직을 두고 있지 않다. 군사과학원이 대만문제연구중심을 설립한 것은 대만의 군사상황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대만의 양안연구 기관 및 학자

대만내에서는 정치대학 동아연구소, 대만대학 사회과학대학 중국대륙연구센터<sup>95)</sup> 단장(淡江)대학 대륙연구소, 문화대학 대륙연구소, 중산대학 중국연구소가 비교적 유명하며 특히 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가 가장 역량이 있다. <sup>96)</sup>이 센터의 제3, 4연구소는 각각 중국대륙의 당정, 외교, 군사, 양안관계, 홍콩, 마카오 및 중국대륙의 사회경제, 소수민족을 다루고 있고, 『중국대륙연구』, 『문제와연구(問題與研究)』를 발행하고 있으며, 리밍(李明), 조우시웅(周世雄), 린정이(林正義), 장야중(張亞中), 류따니엔(劉大年), 쉬쥔귀(徐振國)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만내 주요학자들로 대만대 교수 장야중(張亞中), 중국문화대학 정치학과 스자인(石佳音), 대만대학 정치학과 스톤위(石之瑜), 중국문화대학 사회과학원원장 사오종하이(邵宗海), 대만교육대학 장치밍(莊淇銘), 단장대학(淡江大學) 국제사무전략연구소 소장 웅밍시엔(翁明顯), 대만동화대학 스텐핑(施正鋒) 등이 있다.

대만내 가장 오래된 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은 1927년 난징에서 건립한 것으로 인문사회과학계열 연구소만 11개다. 그 중 대만사연구소, 중국문철(文哲) 연구소, 민족연구소가 유

명하다.<sup>97)</sup> 대만사연구소에서는 『대만사연구』를 간행하고 있다.

원경기금회(遠景基金會)는<sup>98)</sup> 양안관계와 국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학술기구로, 『원경기금회계간』(遠景基金會季刊) 및 『Prospect Journal』을 발간한다.

대만 녹색진영의 주요 싱크탱크로는 대만지고(台灣智庫, Taiwanthinktank)<sup>99)</sup>와 신대만국책지고(新台灣國策智庫, Taiwan Brain Trust 간칭 대만국책)를 들 수 있다.<sup>100)</sup> 대만지고는 천보즈(陳博志)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주요 학자로는 우밍이(吳明敏), 린자룡(林佳龍), 동우대학(東吳大學)의 뤼즈펑(羅致政), 대만대학 국가발전연구소 하오페이쓰(郝培芝), 대만정치대학 대만사 연구소 소장 쉘화위엔(薛化元), 기타 라이이중(賴怡中), 리밍첸(李明峻), 쉬용밍(徐永明) 등의 소장학자가 참여하고, 특히 린자룡은 『미래중국(未來中國)』, 『양안국제체제와민주발전(兩岸黨國體制與民主發展)』의 저자로, 민진당 내에서 자칭, 타칭 양안관계 전문가로 불리며 2014년 타이중시(台中直轄市)의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대만국책은 타이두의 대부 구관민(辜寬敏)이 2010년에 개소했고, 우롱이(吳榮義)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천룽지에(陳榮傑), 까오잉마오(高英茂), 린쥬셰이(林濁水), 아오자원(姚嘉文), 요우시쿤(游錫堃), 천보즈 대만지고 이사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으며, 민진당 집권기 관료를 역임한 인사가 대거 참여와 녹색진영 학자들 대부분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다.

#### 7. 중국대륙내의 주요 양안관계연구 학자

중국전략문화촉진회 대만문제연구 센터 주임 시크리(余克禮),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겸 중국해양대해협양안관계연구소 소장 귀쥔위엔(郭震遠), 상하이 대만연구소 상무부소장 니룽지에(倪永傑), 상하이 해협양안교류촉진회 부회장 겸 상하이동아연구소 초우장근(仇長根), 사먼대학(廈門大學) 대만연구원 원장 리우궈선(劉國深), 중국사과원 대만연구소 부소장 장관화(張寬華), 사먼대학 대만연구원 천콩리(陳孔立),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진찬룡(金燦榮), 베이징 연합대학의 쉬보둥(徐博東), 리쥔광(李振廣), 베이징대학 리이후(李義虎), 중국사과원 대만연구소 홍쯔보(鴻志博), 베이징 대학 항오연구중심(北京大學港澳研究中心) 라오거펑(饒戈平), 중국사과원 대항오법률연구중심(社科院台港澳法律研究中心) 천신신(陳欣新),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대항오연구소(台港澳研究所) 소장 옌안린(嚴安林), 난카이대학(南開大學) 대만경제연구소 소장 자오샤오형(曹小衡), 기타 리자치엔(李家泉), 탄중(譚中) 등이 있고, 시웅지에(熊玠)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양안관계학자다.

#### 8. 대표적인 미국학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부총재, 전 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처장 더글라스 팔(Douglas Paal), 전 AIT주석 버거하르트(Raymond Burghardt), 전 AIT주석 리처드 부시(Richard Bush) 들은 주로 AIT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대만과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전 AIT처장 스탠튼(William A. Stanton)은 현재 대만청화대학 아시아정책센터 주임위원

93) <http://www.cicir.ac.cn>

94) <http://www.cicir.ac.cn/sub-research-institute.php?kai=1&type=41>

95) <http://homepage.ntu.edu.tw/~ntuccs/announce/07060500.html>

96) <http://iir.nccu.edu.tw/per1/pages.php?ID=per101>

97) <http://www.sinica.edu.tw/intro.htm>

98) <http://www.pf.org.tw/Pages/index.aspx>

99) [taiwanthinktank.org/](http://taiwanthinktank.org/)

100) [新台灣國策智庫,http://www.braintrust.tw/](http://www.braintrust.tw/)



이며 대만청화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6년 1월 대만 총통 선거후에 양안은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CSIS)의 보니 글래저 (Bonnie Glaser), 브루킹스연구원의 마이클 오한론 (Michael O'Hanlon) 은 2016년 대만의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지만 양안 모두에게 책임있는 행위를 해야함을 강조하고, 특히 민진당은 걱정적이고 선동적인 방식으로 양안 관계에 임해서도 안되고, 공산당도 보다 큰 영활성(靈活性)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미 양국은 2016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이기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불확정성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sup>101)</sup>

스팀슨센터(<http://www.stimson.org/>)의 동아시아 분과의 알란 롬버그 (Alan Romberg)는 주로 대만의 총통선거와 양안관계를 주로 고찰했고, 보수파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 마이클 필즈베리 (Michael Pillsbury) 중국전략 연구주임으로 최근 출판한 백년 『백년마라톤 (The Hundred-Year Marathon)』에서 미국이 선포한 재평형정책에서 오바마 정부가 대만을 흡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102)</sup>

또한 존 홉킨스대학 교수 데이비드브라운 (David Brown), 스미스 대학(Smith College) 골드스테인 (Steven M. Goldstein) 하버드 대학 페어뱅크 센터(the Fairbank Center)의 윌리엄 커비(William C. Kirby)은 대표적인 양안관계 전문가다.

미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나 미국에서 소수의 학자들이 대만포기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조셉나이 (Joseph Nye)가 나이 프로포즈(Nye Proposal)에서 "일국양제"를 지지한 이래로 미국학자들 사이에서 간발적으로 대만포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Henry Alfred Kissinger), 바네트 (Thomas P.M. Barnett), 특히 오웬스 (Bill Owens)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올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브루스 길리(Bruce Gilley)는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지에서 대만문제의 핀란드화를 우려했고, 찰스 글래저 (Charles Glaser)는 미국이 대만방어에 대한 승락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미어세이머 (John J. Mearsheimer)는 2014년 내셔널인터레스트 (National Interest) 3월호에서 미국은 대만에 작별을 고해야 할 때라고 기고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미어세이머가 쓴 "Say Goodbye to Taiwan"은 최근의 대만포기론을 주장한 것으로 현재 중국의 역량은 미국에 뒤처지고 미국과 개전할 능력이 없지만 중국대륙의 발전추세로 볼 때 대만과 미국에 불리하다고 파악한다. 십년 후에 중국대륙은 미국과 맞수가 될 것이고 시간은 대만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견해다. 중국이 대만을 민족주의와 안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공통된 결론은 양안통일 뿐이라는 것이다.<sup>103)</sup>

<http://hk.cmtt.com/doc/1035/9/6/7/103596780.html?coluid=148&kindid=7550&docid=103596780&mdate=0130000245>

102)

<http://www.defensenews.com/story/defense-news/blog/intercepts/2015/01/27/china-us-taiwan-strategy-superpower-marathon-100/22390029/>

103) <http://nationalinterest.org/article/say-goodbye-taiwan-9931>

## V. 결론

양안간은 1987년부터 친척방문이라는 인도적인 교류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경제, 문화 등으로 확대되었고 나아가 양안간의 정치접촉, 협상이 등장했으며,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학계에서도 양안관계연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그러므로 '양안관계연구'라는 단어는 많이 잡아도 40년 정도에 불과한 신행분야에 속한다. 특히 양안의 군사대치기, 범통쟁탈기, 교류기, 정체성 대립기 등을 다루는 양안관계의 변천과 대만의 지위를 둘러싼 양안간 정위의 문제가 학계에서 비교적 중시되었다. 양안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단지 역사적 접근법만이 유일한 관도일 수 없으므로 양안관계 연구자들은 서구의 이론을 운용하여 양안변천의 과정을 해석하고 새로운 틀을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특히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첫째 중공의 내부환경변화가 중공의 대대만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만내부의 환경변화는 대(對) 중국대륙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는가 셋째 특히 국제환경요소인 미국의 양안정책변화가 양안에 끼치는 영향과 양안교류과정의 영향이 양안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정치학에서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흐름이다. 주요한 쟁점으로서 중국대륙과 미국간에는 '하나의 중국정책'과 '하나의 중국원칙'이 맞부딪친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관계법에 의거하여 대만에 대한 안전을 승락하고 있다.

양안간에도 과거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라는 두 정당이 대만을 포함한 전체중국대륙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인 치권(治權)의 경쟁이었다면, 1996년 직선으로 대만총통선거를 실시이후 "중국은 중국이고 대만은 대만이다"라는 주권의 경쟁으로 변모되었고, 대만내부에서의 환경변화 역시 민주화, 본토화, 타이두화를 거치면서 양안간 정체성의 변화로 나타났다. 현재의 양안은 중국대륙은 점점 더 통일을 원하고 대만은 점점 더 독립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양안간의 쟁점은 국제일중(國際一中), 정치일중(政治一中), 경제일중(經濟一中), 민족일중(民族一中)이다. 양안은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인가, 양안은 정치적으로 '하나의 중국'인가, 양안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중국'시장인가, 양안은 민족적으로 '하나의 중국'민족인가로 귀결된다.

중공은 이러한 '하나의 중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對) 대만공작연구체계를 강화하여, 중앙에서 지방까지 전방위적, 다층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그들 나름의 무실적 입장에서 안전이익과 경제이익을 고려하여 대만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제적 적자를 정치적 흑자로 만회할 수 있다는 중국대륙의 자신감과 대만의 경제적 이득이라는 무실적 태도로 인해, 양안간의 학자들간의 교류 역시 다양해지고 폭넓어지며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의 양안관계를 형용한다면 정랭경열(政冷經熱)로 표현할 수 있다. 양안간의 경제, 사회문화적 교류로 인해 상호의존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베이징과 타이베이 정치지도자들은 여전히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다. 남북한 관계가 양안관계와 다른 점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경제적 교류마저 차단당해 버린다는 점이다. 남북한관계와 양안관계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국제적 지위, 쌍방의 상호정책과 인식 등 상이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양안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안관계가 완화된 원인에는 양안 지도자들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체제와 이념의 상호인정, 쟁의성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해주는 무실적 태도,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은 공통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러한 공통된 인식의 기초하에서 관계악화를 바라지 않는 현실인식이 그 바탕이 깔려있다. 양안간은 정치와 비정치, 민간과 관방의 분리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

로 볼 때, 양안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적 통합 간 상관연구나, 민간과 관방의 분리라는 양안관계의 상호비교연구를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대중정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이원봉,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양안관계」, 『아태연구』, 제16권 제2호.  
Brett V. Benson and Emerson M. S. Niou, “The U.S. Security Commitment to Taiwan Should Remain Ambiguous”, in Carolyn W. Pumphrey ed., *The Rise of China in Asia: Security Implications*,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2002.

David Lampton,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89-2000*,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Douglas H. Pall and Jeffrey Bader, “Georgia's Lessons for Taiw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2, 2008, available at: <http://www.carnegieendowment.org/publications/?fa=view&id=20442&prog=zch,zru>

Harry Harding, “Think Again: China”, *Foreign Policy*, Vol. 25, No. 2 (March/April 2007).

James Kelly. 2004, “The Taiwan Relations Act: The Next 25 Years.”, Testimony of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nd Pacific Affairs, James Kelly at hearing held by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on April 21, 2004.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New York: W. Norton Co. 1997.  
Thomas J. Christensen, “The Contemporary Security Dilemma: Detering a Taiwan Conflict”,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5, No. 4, 2002.  
Nancy Bernkopf Tucker, “Strategic Ambiguity or Strategic Clarity?” in Nancy Bernkopf Tucker ed., *Dangerous Strait, The U.S.-Taiwan-China Cri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Paul R. Vioti, Mark V. Kauppi, *International Relation Theor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7.

Richard Bush, *Untying the Knot: Making Peace in the Taiwan Strai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5.

Susan L. Shirk, *China: Fragile Super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Suisheng Zhao, “Strategic Dilemma of Beijing's Taiwan Policy: Chinese Nationalism and the Making of the Anti-Session Law”, in Peter C.Y. Chow ed., *The “One China” Dilemm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Michael Swaine, “Trouble in Taiwan”, *Foreign Affairs*, Vol. 83, No. 2 (March/April

2004).

『一個中國原則與臺灣問題白皮書』,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2002.

王玉玲, 『由兩岸關係探討台灣的統獨問題: 以博弈理論析之』, 臺北: 桂冠, 1996.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鄧小平文選 (卷三)』, 北京: 人民出版社, 1993.

石之瑜, 『兩岸關係概論』, 臺北: 揚智叢刊, 1998.

史明, 『臺灣人四百年史』, 臺北: 草根文化, 1999.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包諄亮, 「兩岸政治矛盾與未來」, 王央城主編, 『前瞻兩岸關係發展的趨勢』, 台北: 國防大學戰略研究所出版, 2007.

李登輝, 『臺灣的主張』, 臺北: 源流, 1999.

和泉台郎, 李毓昭譯, 『日美台三國同盟』, 台北: 晨星出版, 1999

楊開煌, 『出手, 胡政權對台政策初探』, 臺北: 海峽學術, 2005.

吳玉山, 『抗衡或扞從兩岸關係新詮』, 台北: 中正書局, 1999.

『臺灣問題與中國的統一』,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1993.

「關於一個中國的含義」, 國家統一委員會, 1992.

吳恒宇, 『現階段中共對台文武嚇的研究 (1995-2001)』, 臺北: 大屯出版社, 2001.

湯紹成, 『國民黨的政策與觀點』, 台北: 中央日報, 2010년 3월 29일.

黃爾璇, 「未來台灣政局的分析」, 『台灣e廣場』, 2008년 7월 8일.

陳豐祥, 『普通高級中學「歷史」』, 臺北: 泰宇出版, 2008.

黃昭堂, 『黃昭堂獨立文集』, 台北: 臺灣文史叢書, 2003.

「政府大陸政策重要檔」, 「陳總統就職演說」, 大陸委員會, 2000年.

陳儀深, 「臺灣地位論述總整理」, 『自由時報』, 2007년 8월 7일

張茂柱, 「談身份認同政治的幾個問題」, 遊盈隆通, 『民主鞏固或崩潰: 台灣二十一世紀的挑戰』, 臺北: 月旦出版社, 1998.

楊開煌, 『出手-胡政權對台政策初探』, 臺北: 海峽學術, 2005.

蘇起, 「兩岸關係的三個特殊性」, 國安 (評) 090-284號, 中華民國90年11月19.

楊開煌, 『出手, 胡政權對台政策初探』, 臺北: 海峽學術, 2005, 27쪽

「胡锦涛在纪念《告台湾同胞书》30周年会上讲话」, 2008年12月 31日, <http://news.sina.com.cn/c/2008-12-31/132716956875.shtml>

高朗, 「从政和理论探索两岸争得的条件与困境」, 包宗和, 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关系理论』, 台北: 五南, 1999, 41-77쪽.

張五岳, 「分裂國家模式之探討」,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79-90쪽.

吳玉山, 「臺灣的大陸政策: 結構與理性」,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164-210쪽.

吳秀光, 「兩岸談判之結構分析: 由博弈理論出發」,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111-152쪽.

明居正, 『國際體系理論與兩岸關係』, 包宗和、吳玉山主編, 『爭辯中的兩岸關係理論』, 臺北: 五南, 1999, 365-388쪽.

辛旗,「國際戰略環境的變化及臺灣問題」,北京:戰略與管理》,第04期,1996.

江澤民,「為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奮鬥」的重要講話。所謂江八點,1995年1月30日

羅致正/宋允文,『結構一個中國國際脈絡下的政策解析』,臺北:台灣知庫,2007,4帙.

『中國評論』,第191期,2013年 11月號.

『民眾日報』,1995年 10月 26日.

中華民國行政院大陸委員會, <http://www.mac.gov.tw/ct.asp?xItem=67145&ctNode=5710&mp=1>

民主進步黨, <http://www.dpp.org.tw/>

台灣智庫, [taiwanthinktank.org/](http://taiwanthinktank.org/)

新台灣國策智庫, <http://www.braintrust.tw>

兩岸企業家峰會, <http://www.laqyjfh.com/>

全國臺灣研究會, <http://tyh.chinataiwan.org/>

『福建東南新聞網』,2008年 12月 4日, [http://big5.fjsen.com/misc/2008-12/04/content\\_616137.htm](http://big5.fjsen.com/misc/2008-12/04/content_616137.htm)

『新華日報』,2007年 9月 6日.

天津市臺灣研究會, <http://www.tjtyh.com/docc/haixialuantan.htm>

中國社科院, <http://www.cass.net.cn>

中國社科院臺灣研究所, [http://www.cass.net.cn/y\\_03/y\\_03\\_50twyjs.html](http://www.cass.net.cn/y_03/y_03_50twyjs.html)

<http://w3.pku.edu.cn/life/xuehui/pkutra/online.ht>

『新華網』,2002年 9月 28日,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09/28/content\\_579027.htm](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2002-09/28/content_579027.htm)

<http://twri.xmu.edu.cn/>

『人民網』, <http://tw.people.com.cn/GB/14865/14925/859945>

[www.hellotaiwan.org.cn/index.as](http://www.hellotaiwan.org.cn/index.as)

<http://sh.taiwandao.org/twyjs/>

[http://www.siiis.org.cn/Lingyu\\_View.aspx?lid](http://www.siiis.org.cn/Lingyu_View.aspx?lid)

<http://www.sssa.org.cn/shdy1.htm>

<http://www.cicir.ac.cn>

<http://www.cicir.ac.cn/sub-research-institute.php?kai=1&type=>

<http://homepage.ntu.edu.tw/~ntuccs/announce/07060500.html>

<http://iir.nccu.edu.tw/per1/pages.php?ID=per101>

<http://www.sinica.edu.tw/intro.htm>

<http://www.pf.org.tw/Pages/index.aspx>

[http://www.taiwan.cn/hxlt/gylt/201406/t20140606\\_6276731.htm](http://www.taiwan.cn/hxlt/gylt/201406/t20140606_6276731.htm)

<http://hk.crntt.com/doc/1035/9/6/7/103596780.html?coluid=148&kindid=7550&docid=103596780&mdate=0130000245>

<http://www.defensenews.com/story/defense-news/blog/intercepts/2015/01/27/china-us-taiwan-strategy-superpower-marathon-100/22390029/>

<http://nationalinterest.org/article/say-goodbye-taiwan-9931>

<http://special.taiwan.cn/communicate/>

<http://tw.people.com.cn/n/2014/0910/c14657-25633315.html>